

KERI 경제동향과 전망

2023년 1분기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이 승 석 부 연 구 위 원

감 수

조 경 엽 경제연구실 실장

〈 차례 〉

요 약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10

 3. 고용 18

 4. 물가 21

 5. 금리와 환율 26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29

 1. 대외 여건 31

 2. 2022~2023년 국내 경제전망 34

〈 표 차례 〉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9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32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33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34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34
〈표 II-5〉 2022~2023 국내경제전망	51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3
〈그림 I-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가율 추이	4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6
〈그림 I-4〉 산업생산	9
〈그림 I-5〉 경기종합지수	10
〈그림 I-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11
〈그림 I-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11
〈그림 I-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12
〈그림 I-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상단) 및 무역수지(하단)	13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14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15
〈그림 I-12〉 서비스수지 항목별 증감	16
〈그림 I-13〉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및 본원소득수지 변화	16
〈그림 I-14〉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19
〈그림 I-15〉 고용률	20
〈그림 I-16〉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1.12 → 2022.12)	20
〈그림 I-17〉 산업별 취업자 증감율(2019 → 2022): 코로나 이전 vs 코로나 이후	21
〈그림 I-18〉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23
〈그림 I-19〉 품목성질별 증가율	23
〈그림 I-20〉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4
〈그림 I-21〉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25
〈그림 I-22〉 아파트 전세가격	26
〈그림 I-23〉 한·미 기준금리와 한국의 시장금리	27
〈그림 I-24〉 원/달러, 원/100엔	28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33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35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36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37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38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38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39
〈그림 II-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40

〈그림 II-9〉 업황전망	40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41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42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43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	44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45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47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48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48
〈그림 II-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50
〈그림 II-19〉 미국 기준금리 전망	51

요약

2023년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할 국내 성장모멘텀은 부재(不在)함에 따라 1.5% 저성장을 기록하며 본격적인 불황국면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원활한 대처여부가 성장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를 거치며 더욱 심화된 경제여건의 부실화와 정책적 지원여력 약화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특히, 美연준의 급진적 긴축기조 지속으로 과도한 수준의 민간부채가 금융시장의 위기로 파급되어 불확실성이 증폭하게 되거나 주택시장의 위축이 심화된다면 성장률의 급감은 불가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간소비는 2.4% 성장에 그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및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부진흐름을 주도하는 가운데, 자영업자 소득감소, 금리인상으로 폭증한 가계부채원리금 상환부담,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부(-)의 자산효과 등의 구조적 원인 역시 소비회복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위축에 따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비용부담까지 크게 늘어 -2.5% 역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과거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에 따라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차질 심화에 주택시장 위축까지 영향을 미치며 역성장(-0.5%) 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이 상반기를 경과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강달러 현상 역시 완화하게 됨에 따라 올해보다 2%p 가까이 낮은 3.4%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편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던 실질수출은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및 최대수출품목인 반도체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1.2%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대수출국인 중국의 경기위축 폭이 예상보다 커지거나 반도체 이외의 주력 수출품목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증가 폭이 더욱 줄어들게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고용
4. 물가
5.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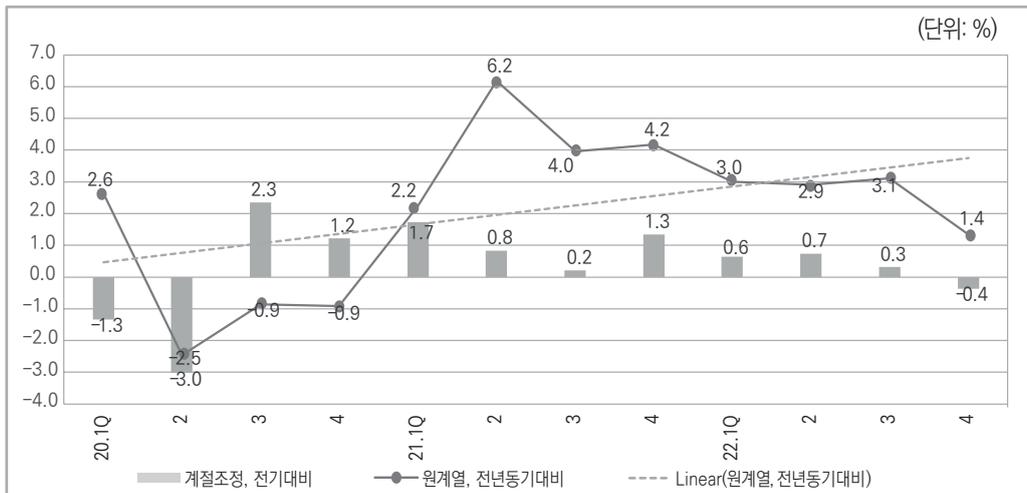
□ '22년 4/4분기, 높은 물가상승세 지속 및 통화긴축에 따른 금리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10분기 만에 역(逆)성장을 기록하며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가 확대
(*22년 4/4분기, 전년동기비 1.4%, 전기대비 -0.4%)

○ 2022년 4/4분기 전기대비 성장률이 -0.4%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10분기 만에 역(逆)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 역시 1%대로 내려앉은 1.4%를 기록

- 전기비: 1.7%(2021.1/4) → 0.8%(2021.2/4) → 0.2%(2021.3/4) → 1.3%(2021.4/4) → 0.6%(2022.1/4) → 0.7%(2022.2/4) → 0.3%(2022.3/4) → -0.4%(2022.4/4)

- 동기비: 2.2%(2021.1/4) → 6.2%(2021.2/4) → 4.0%(2021.3/4) → 4.2%(2021.4/4) → 3.0%(2022.1/4) → 2.9%(2022.2/4) → 3.1%(2022.3/4) → -1.4%(2022.4/4)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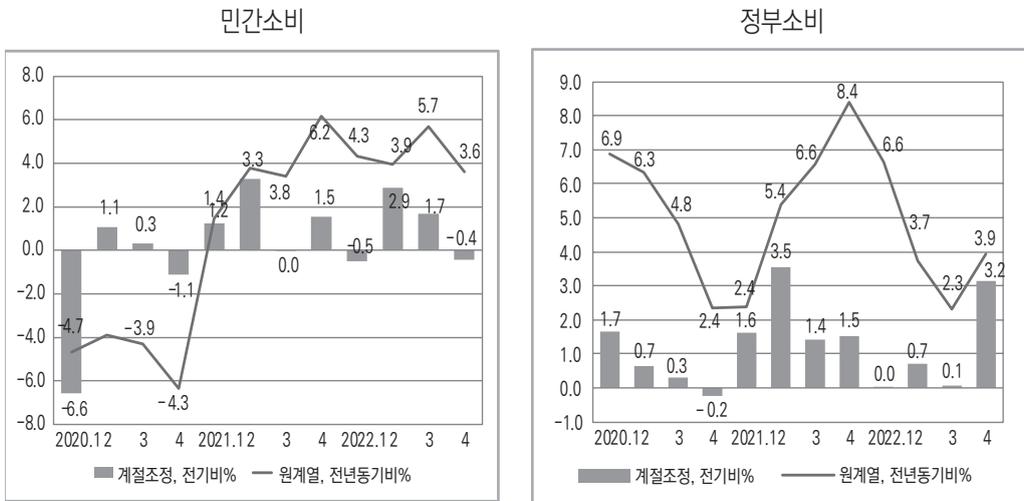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최종수요) '22년 4/4분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부진. 특히, 민간소비와 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며 부진이 심화
 - 민간소비는 양호한 수준의 고용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불황 및 고금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의 영향으로 역(逆)성장
 - 건설투자는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대형 건설현장의 불협화음이 발생되며 부진이 지속
 -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증가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
 - 수출은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며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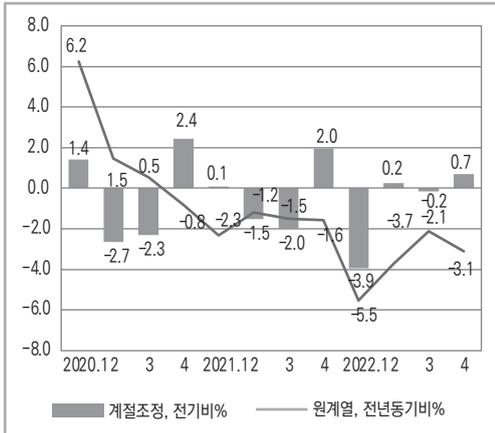
〈그림 1-2〉 주요 최종수요 항목별 증감률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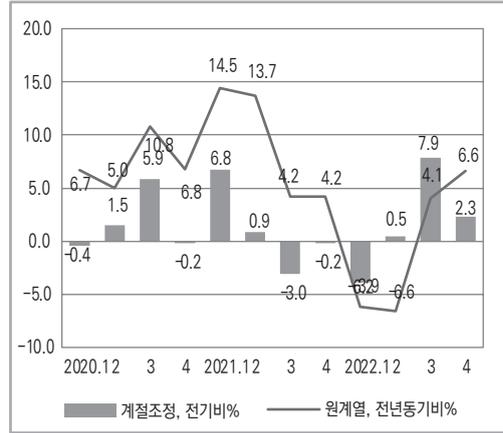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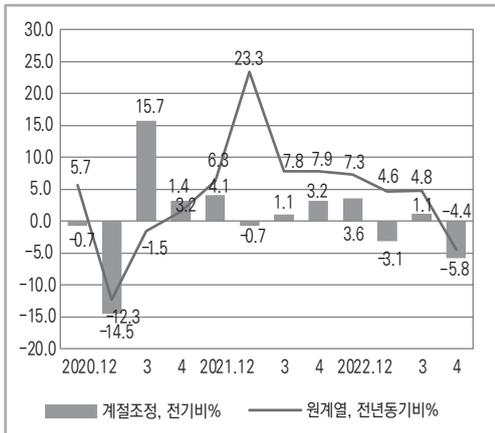
건설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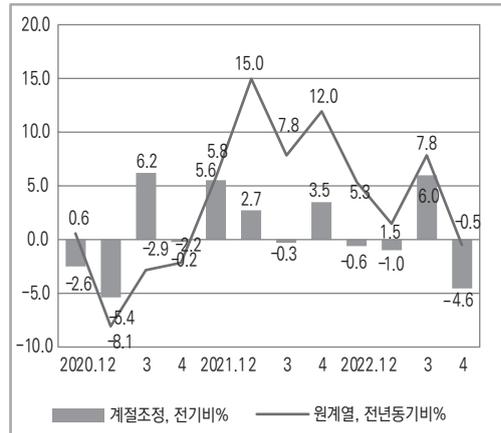
설비투자



수출(재화+서비스)



수입(재화+서비스)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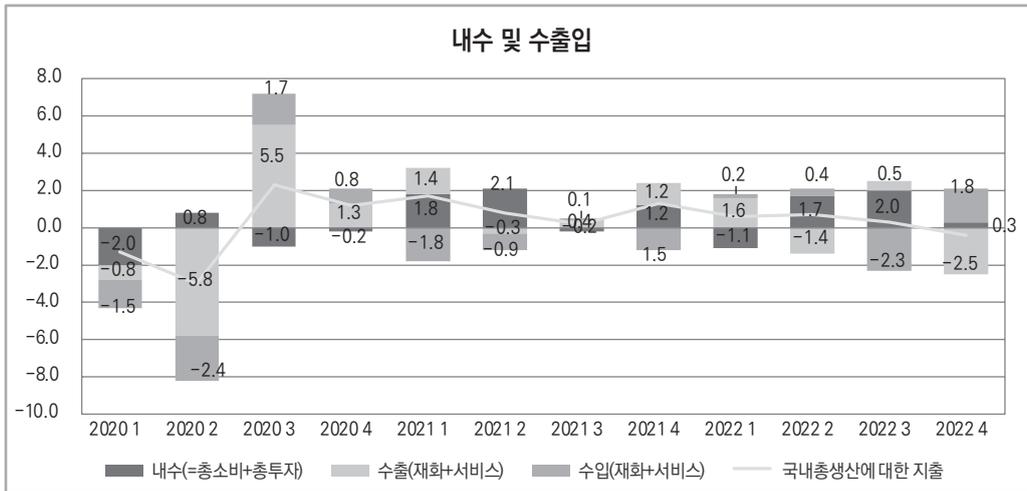
□ (기여도) 내수 및 수출의 기여도 큰 폭으로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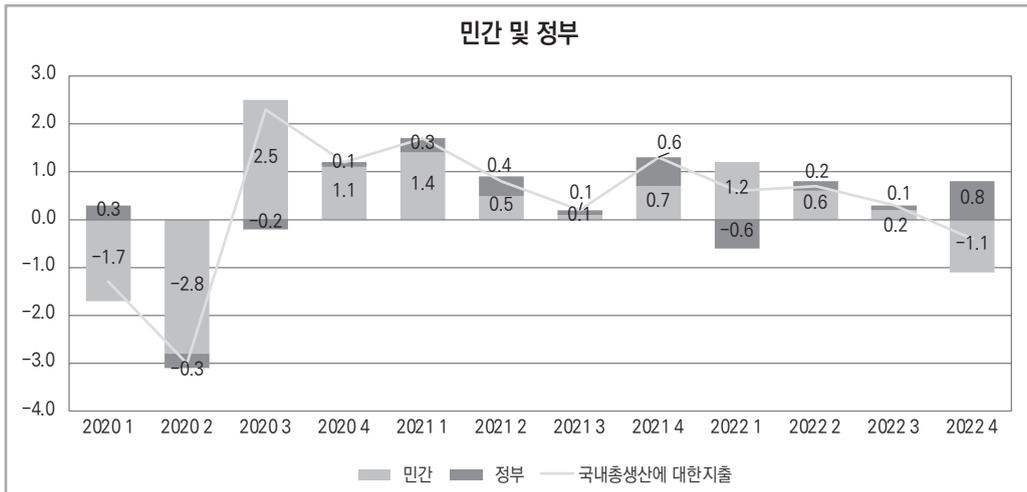
- 내수(총소비+총투자): 1.8%(2021.1/4) → 2.1%(2021.2/4) → -0.2%(2021.3/4) → 1.2%(2021.4/4) → -1.1%(2022.1/4) → 1.8%(2022.2/4) → 2.0%(2022.3/4) → 0.3%(2022.4/4)
- ✓ 총소비: 0.9%(2021.1/4) → 2.1%(2021.2/4) → 0.3%(2021.3/4) → 1.0%(2021.4/4) → -0.2%(2022.1/4) → 1.4%(2022.2/4) → 0.8%(2022.3/4) → 0.4%(2022.4/4)
- ✓ 총투자: 1.2%(2021.1/4) → 0.0%(2021.2/4) → -0.5%(2021.3/4) → 0.2%(2021.4/4) → -0.9%(2022.1/4) → 0.3%(2022.2/4) → 1.2%(2022.3/4) → 0.0%(2022.4/4)
- 순수출: -0.4%(2021.1/4) → -1.2%(2021.2/4) → 0.5%(2021.3/4) → 0.0%(2021.4/4) → 1.7%(2022.1/4) → -1.0%(2022.2/4) → -1.8%(2022.3/4) → -0.5%(2022.4/4)

○ 민간부문의 기여도는 감소 정부부문 기여도는 확대

〈그림 I-3〉 부문별 GDP 성장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비, %p)





자료: 한국은행

□ 12월 산업생산은 생산(-1.6%), 투자(설비-7.1%/건설-9.5%)로 저조한 실적 기록한 가운데 소비(+1.4%)는 소폭 증가

○ (생산) 전산업생산은 전월비 1.6% 감소. 광공업은 2.9% 감소, 서비스업은 도소매를 중심으로 0.2% 감소

- 전산업생산: (전월비) -0.3%(2022.2월) → 1.6%(2022.3월) → -0.9%(2022.4월) → 0.8%(2022.5월) → 0.8%(2022.6월) → -0.2%(2022.7월) → -0.1%(2022.8월) → -0.6%(2022.9월) → -1.5%(2022.10월) → 0.4%(2022.11월) → -1.6%(2022.12월)

-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에서 늘었으나, 광업·제조업에서 모두 감소

✓ 전체 광공업: (전월비) 0.3%(2022.2월) → 1.2%(2022.3월) → -3.3%(2022.4월) → 0.2%(2022.5월) → 1.8%(2022.6월) → -1.3%(2022.7월) → -1.4%(2022.8월) → -1.8%(2022.9월) → -3.4%(2022.10월) → 0.6%(2022.11월) → -2.9%(2022.12월)

✓ 주요 증가 업종(전월비): 반도체(4.9%), 1차금속(3.1%)

✓ 주요 감소 업종(전월비): 자동차(-9.5%), 전자부품(-13.1%)

★ 제조업 재고는 전월비 1.2%(전년동기비 +3.4%) 감소

- 서비스업 생산은 도소매를 중심으로 전월비 0.6% 감소

- ✓ 전체 서비스업: (전월비) -0.4%(2022.2월) → 1.6%(2022.3월) → 1.1%(2022.4월) → 1.0%(2022.5월) → -0.2%(2022.6월) → 0.2%(2022.7월) → 1.8%(2022.8월) → -0.3%(2022.9월) → -1.0%(2022.10월) → -0.3%(2022.11월) → -0.2%(2022.12월)
- ✓ 주요 증가 업종(전월비): 금융보험(11.3%)
- ✓ 주요 감소 업종(전월비): 부동산(-10.9%)

- (소비) 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2.7%)가 줄었으나 준내구재(11.1%)와 비내구재(0.1%)의 판매가 늘면서 1.4% 증가
 - 전체소매판매: (전월비) 0.0%(2022.2월) → -0.7%(2022.3월) → -0.3%(2022.4월) → -0.2%(2022.5월) → -1.0%(2022.6월) → -0.4%(2022.7월) → 4.4%(2022.8월) → -2.0%(2022.9월) → -0.2%(2022.10월) → -1.7%(2022.11월) → 1.4%(2022.12월)
 - ✓ 소매업체별로는 편의점과 백화점의 판매는 늘고, 대형마트와 면세점 그리고 슈퍼마켓의 판매는 감소

- (투자) 설비투자는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월비 7.1% 큰 폭 감소. 건설투자는 토목(-5.1%)과 건축(-10.9%)이 모두 줄면서 전월대비 9.5% 감소
 - 설비투자: (전월비) -5.6%(2022.2월) → -2.3%(2022.3월) → -7.1%(2022.4월) → 12.8%(2022.5월) → 4.4%(2022.6월) → -3.2%(2022.7월) → 10.7%(2022.8월) → -2.8%(2022.9월) → 0.4%(2022.10월) → 0.7%(2022.11월) → -7.1%(2022.12월)
 - 건설투자: (전월비) -7.2%(2022.2월) → 1.4%(2022.3월) → -0.2%(2022.4월) → 6.5%(2022.5월) → -1.2%(2022.6월) → -3.1%(2022.7월) → 3.8%(2022.8월) → 0.4%(2022.9월) → 5.1%(2022.10월) → 2.7%(2022.11월) → -9.5%(2022.12월)

〈표 I-1〉 주요 산업활동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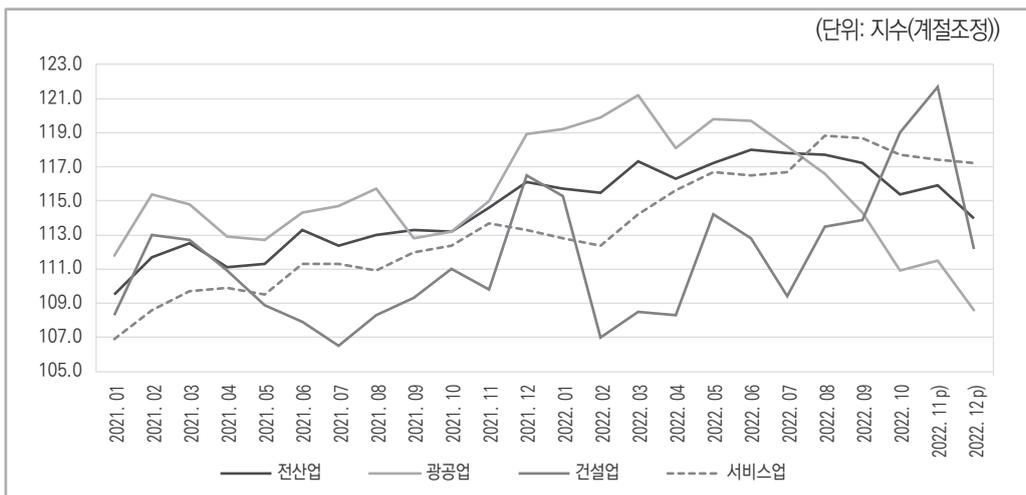
(단위: 전년동월(기)비 %, 괄호 안의 숫자는 전월비)

		2021년			2022년						
		연간	4/4	12월	연간 p)	1/4	2/4	3/4	4/4 p)	11월 p)	12월 p)
생산	전산업	4.9	5.7 (1.5)	6.7 (1.3)	3.3	4.0 (1.3)	4.5 (0.9)	4.0 (0.4)	1.0 (-2.1)	1.2 (0.4)	-0.8 (-1.6)
	제조업	7.6	6.5 (1.3)	7.4 (3.5)	1.3	4.7 (3.9)	4.3 (-1.7)	1.2 (-1.8)	-4.3 (-5.7)	-3.3 (0.8)	-8.0 (-3.5)
	서비스업	4.4	5.5 (1.5)	5.8 (-0.4)	4.8	4.1 (0.0)	5.5 (2.8)	6.0 (1.5)	3.9 (-0.8)	3.1 (-0.3)	3.7 (-0.2)
	평균가동률	74.4	75.4	77.6	75.3	77.9	76.2	75.4	71.8	72.8	70.3
소비	소매판매	5.9	6.4 (1.1)	6.8 (2.2)	0.2	2.8 (-1.1)	-0.2 (-1.1)	-0.2 (1.2)	-1.8 (-0.8)	-2.1 (-1.7)	-2.5 (1.4)
	투자	9.6	6.2 (-0.2)	6.5 (2.1)	3.3	-1.3 (0.2)	-2.4 (-1.2)	7.5 (9.8)	9.6 (-0.1)	10.7 (0.7)	3.2 (-7.1)
건설기성	-6.7 (4.1)		0.5 (6.0)	2.5	-1.5 (-1.9)	2.1 (1.4)	3.9 (0.4)	5.1 (5.1)	12.1 (2.7)	-3.1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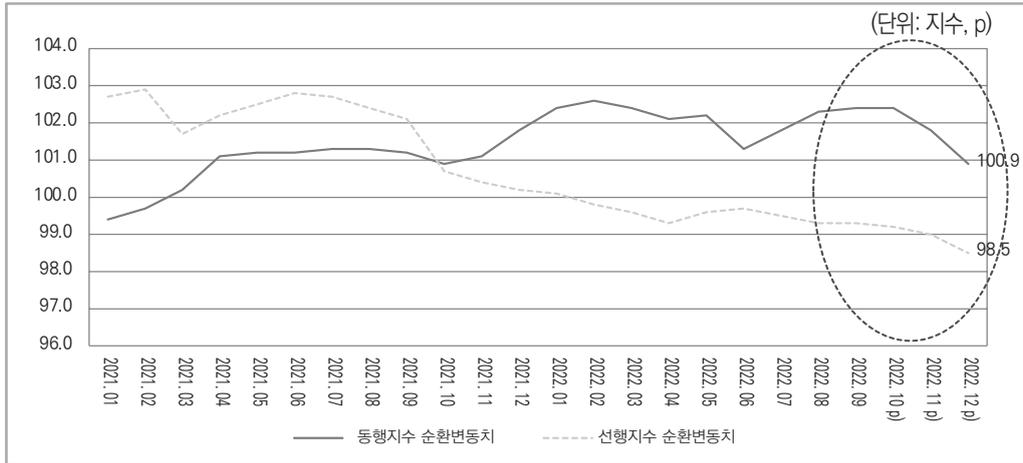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경기) 교역조건 악화 등 하방리스크 확대로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하락.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서비스업 증가에 힘입어 상승

〈그림 I-4〉 산업생산



〈그림 1-5〉 경기종합지수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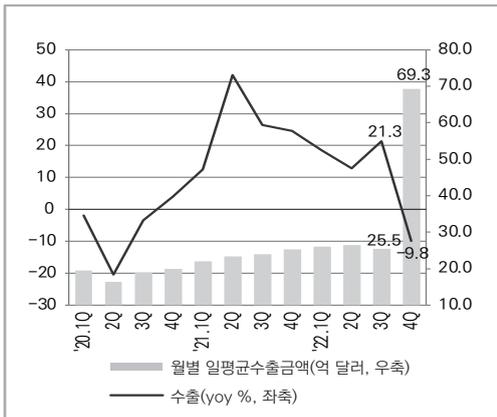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무역수지 2022년 4분기 185억 달러 '적자'로 전년동기 대비 229억 달러 감소(전기대비 3억 달러 적자폭 증가)
 - 2022년 4/4분기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가 확대되며 반도체, 무선통신, 석유화학 등 주력 수출품목들의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성장세가 약화
 - 2022년 4/4분기 수입은 계절적 영향으로 원유 수입액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높은 에너지 및 원자재가격까지 영향을 주면서 높은 증가세 유지
 - 2022년 4/4분기 무역수지 185억 달러 '적자'
 - 수출은 1,593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동기대비 10% 감소
 - 수입은 1,926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3.2% 증가

- 2022년 연간 무역수지 474억 달러 '적자' 기록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국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둔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수입시장 위축이 무역수지 악화의 주요 배경
- 2023년 1월 수출입은 수출 462억 달러(동기비 -16.6%), 수입 589억 달러(동기비 -2.6%)로 무역수지 126억 달러 적자 기록

〈그림 1-6〉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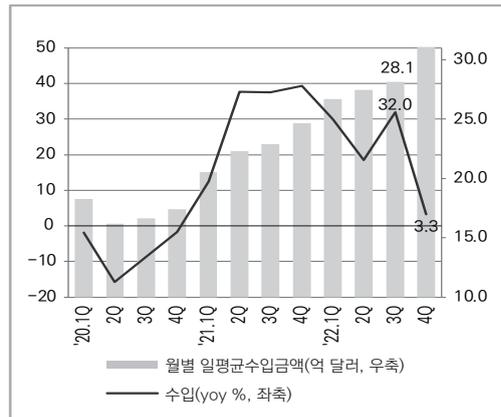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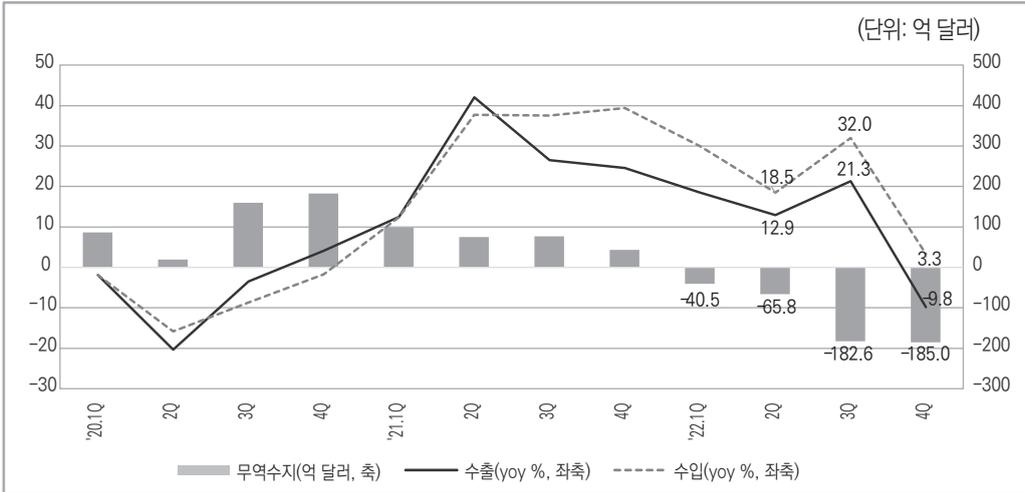
〈그림 1-7〉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액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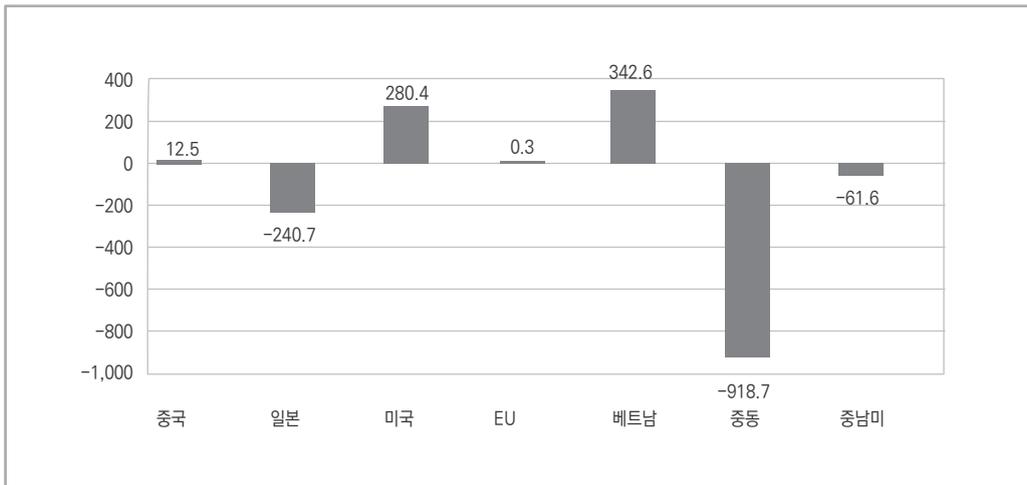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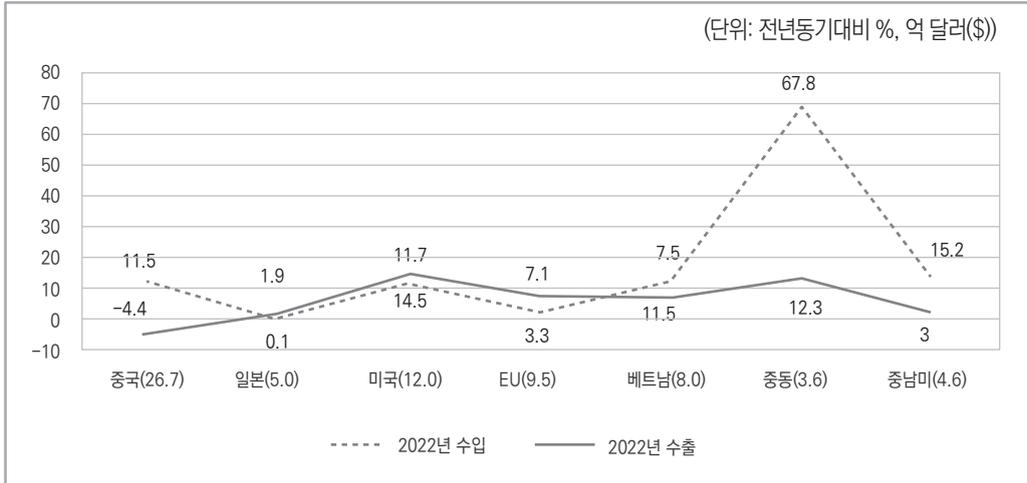
〈그림 1-8〉 통관기준 무역수지-수출-수입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 (지역별 수출) 對미국 및 EU 수출은 증가한 반면, 중국과 일본에 대한 수출은 감소
 - 미국: 高인플레이션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생산 및 소비지표가 현재까지는 양호한 실적을 보이며 대미수출 호조 지속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자동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 중국: 봉쇄조치 여파에 따른 시장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대부분의 품목에 대한 對중국 수출 감소. 특히 단가가 하락중인 반도체도 감소세로 전환
 - ✓ 주요 수출감소품목: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 유로: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증가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석유제품, 이차전지
 - ✓ 주요 수출감소품목: 반도체, 자동차, 철강
 - 일본: 대일수출은 엔화약세로 수입부담이 증가한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까지 확대되며 수출이 감소
 - ✓ 주요 수출감소품목: 반도체, 일반기계
 - CIS: 장기화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수출은 감소세를 지속해 오다 10월 들어 플러스(+)로 반등
 - ✓ 주요 수출증가품목: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그림 1-9〉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상단) 및 무역수지(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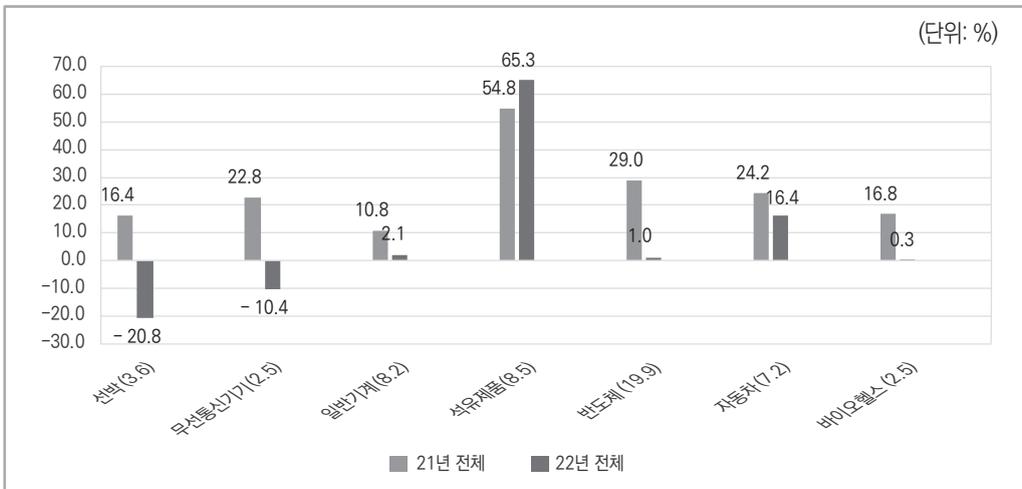


주: () 내 수치는 2021년 기준 지역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통계청

- (품목별 수출) 주력 품목들의 수출 증가세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약화
 - 반도체: D램, 낸드 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서버수요 둔화, 낸드 공급과잉 등의 복합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며 하락세가 확대
 - 자동차: SUV 및 친환경차에 대한 수요 확대 및 차량용반도체 수급상황 개선에 힘입어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증가
 - 선박: LNG선 수출감소의 영향으로 전체 선박 수출 감소
 - 일반기계: 북미시장의 설비투자 수요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시장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감소
 - 바이오헬스: 코로나 재유행에도 불구하고 작년 높았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와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감소
 - 석유제품: 국제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중국, 아세안 등 주요 지역으로 수출이 고르게 증가
 - ✓ 수송용 연료에 대한 수요증가
 - ✓ 국제유가 상승 이외에도 합성수지, 고무 등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 확대

〈그림 I-10〉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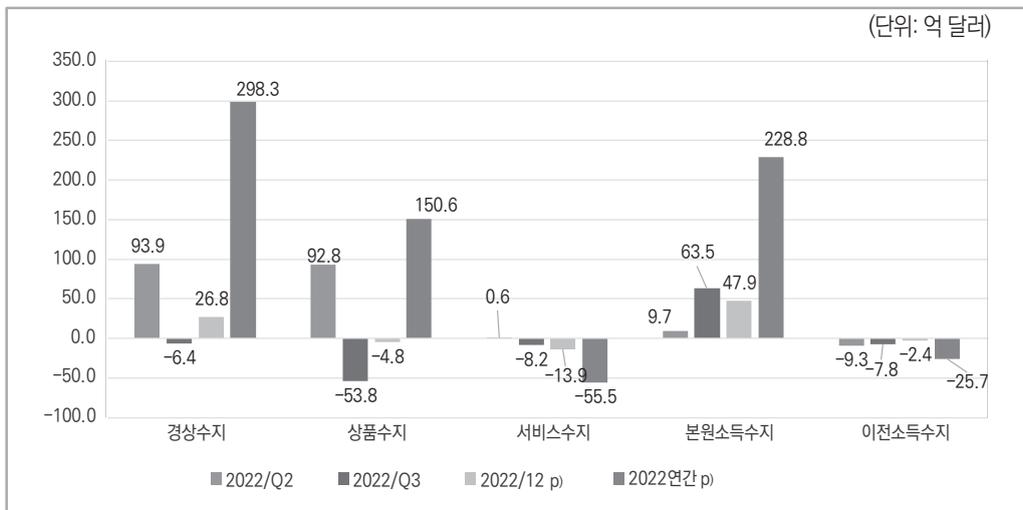
주: ()내 수치는 2021년 기준 품목별 수출비중

자료: 한국무역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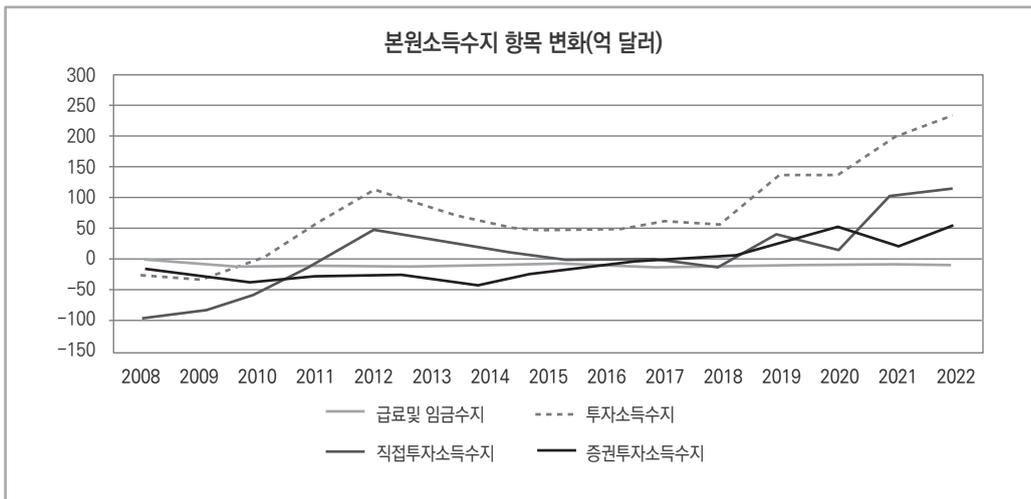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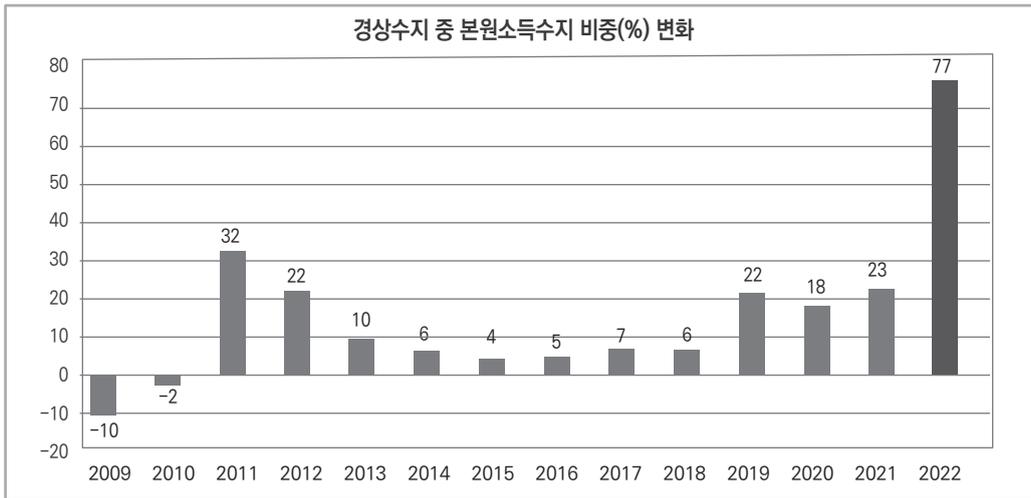
□ 2022년 연간 경상수지 298.3억 달러 흑자 기록

- 상품수지 감소 효과를 서비스수지 적자 감소와 본원소득 수지 증가가 상쇄시키며 저조한 실적이나마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는 높은 수입증가세 대비 낮아진 수출 증가에 기인하여 악화. 전년동기 256억 달러 흑자 대비 106억 달러 감소한 150.6억 달러 흑자 기록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 및 운송수지의 양호한 흐름에 힘입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재산권 등 사용료 증가에 기인하여 55억 달러 적자 기록
 -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수입 증가에 힘입어 흑자폭 230억 달러 수준에 도달
 - 이전소득수지 25.7억 달러 적자

〈그림 I-11〉 경상수지 항목별 증감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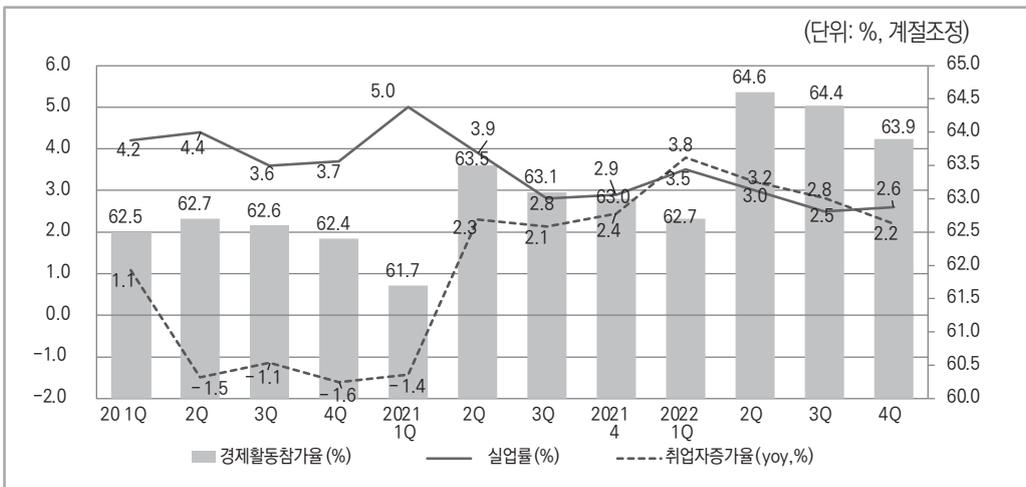
3. 고용

□ 고용시장. 2022년 12월 기준, 취업자 2,780.8만 명을 기록하며 전년동월대비 50.9만 명 증가. 고용률 61.3%, 실업률은 3.0%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 지속. 다만, 12월은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 고용률(취업자/생산가능인구)은 61.3%로 전년동기대비 0.9%p 상승
 - 고용률(%): 59.6('22.1) → 60.6('22.2) → 61.4('22.3) → 62.1('22.4) → 63.0('22.5) → 62.9('22.6) → 62.9('22.7) → 62.8('22.8) → 62.7('22.9) → 62.7('22.10) → 62.7('22.11) → 61.3('22.12)
 -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5.9%로 전년동기대비 0.5%p 하락
-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인구): 실업률은 2.6%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
 - 실업률(%): 4.1('22.1) → 3.4('22.2) → 3.0('22.3) → 3.0('22.4) → 3.0('22.5) → 3.0('22.6) → 2.9('22.7) → 2.1('22.8) → 2.4('22.9) → 2.4('22.10) → 2.3('22.11) → 3.0('22.12)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2%
- 취업자는 연간 전년대비 50.9만 명 증가한 2,780.8만 명 기록. 금융·보험 및 도소매업의 취업자는 감소한 반면, 제조업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수는 증가
 - 산업별로는 사회복지서비스업(+18.4만), 숙박 및 음식점업(+21.6만) 부문에서 증가하고 감소세를 지속해 오던 제조업(+8.6만)에서도 증가한 반면, 도소매업(-7.3만) 및 금융보험업(-2만)은 감소
 - 연령계층별로는 40대와 20대에서 각각 5.7만 명, 2.1만 명 감소한 것 외에 전 연령층에서 고르게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는 63.6만 명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2.3만 명, 7.6만 명 감소
-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는 69.9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6.1만 명 감소, 구직단념자는 38.8만 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1.8만 명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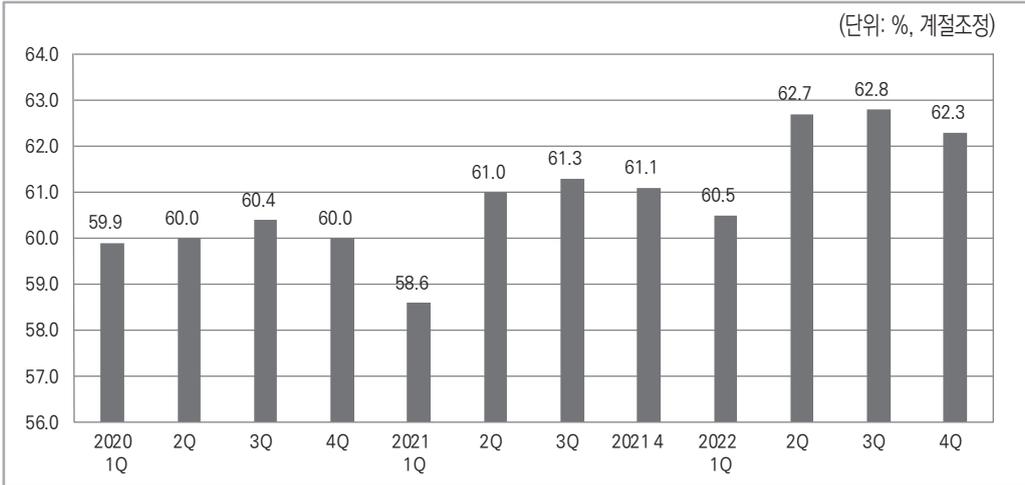
- 2022년 12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50.9만 명 증가하며 62.6만 명 증가했던 11월에 비해 증가폭이 축소
- 경기둔화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견조한 고용흐름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수·창고,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팬데믹 관련 일자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그림 I-14〉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취업자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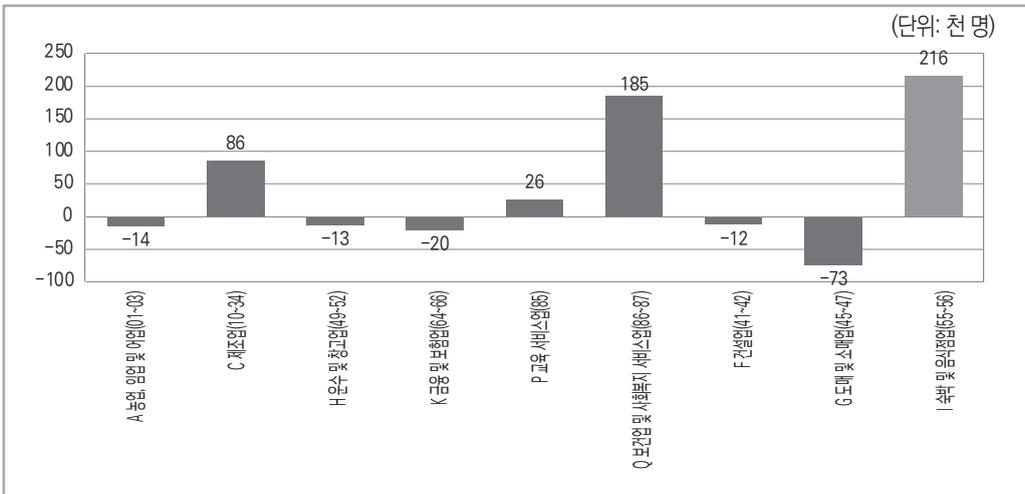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5〉 고용률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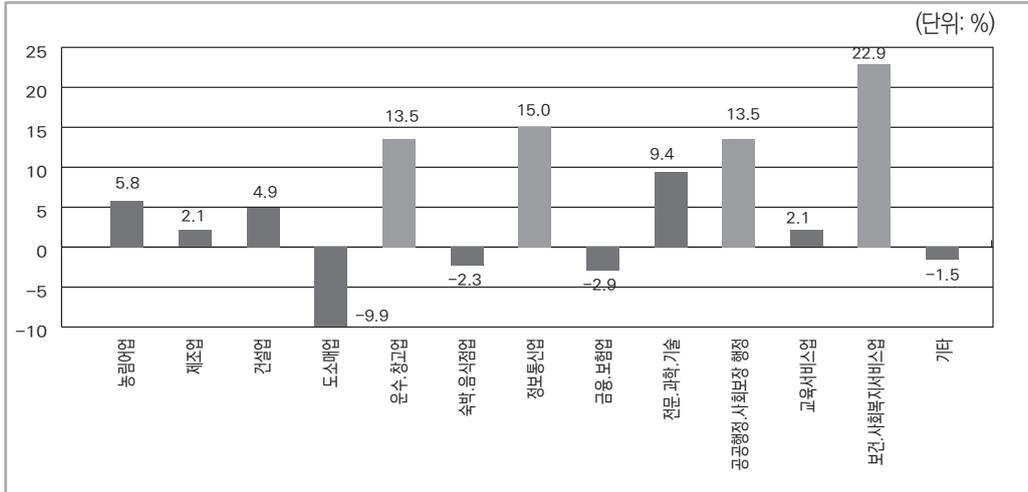
〈그림 I-16〉 산업별 취업자 증감(2021.12 → 2022.12)



주: ()내 수치는 2021년 산업별 임금수준(전산업 평균=100)

자료: 한국은행

〈그림 I-17〉 산업별 취업자 증감율(2019 → 2022): 코로나 이전 vs 코로나 이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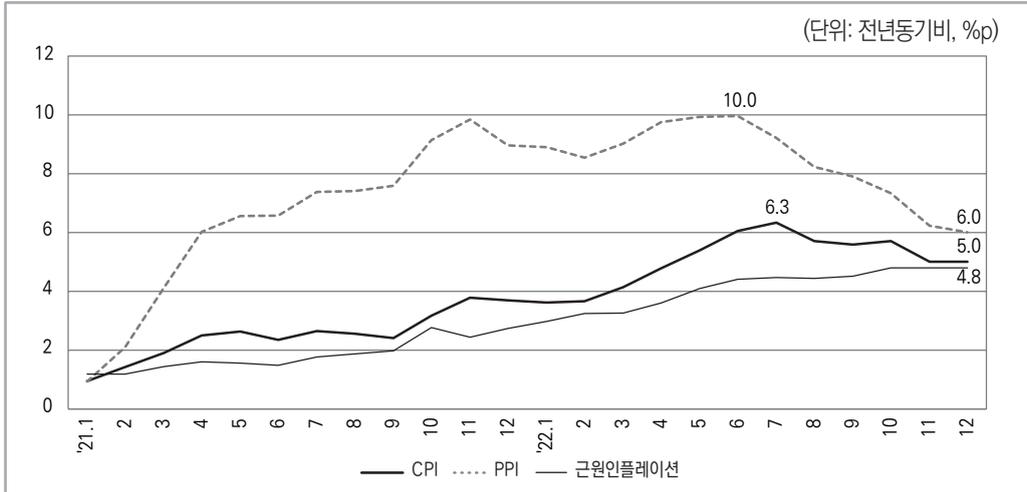
4. 물가

-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에 전년동기 저조했던 물가에 대한 기저효과까지 더해지면서 2022년 소비자물가는 5.1% 상승. 다만, 최근 물가상승세는 공공요금 인상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 광의통화(M2) 기준 3,778조 원(2022년 11월 기준) 수준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의 통화량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상승에 대한 구조적 기반이 형성된 상황
- 대외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등이 물가에 대한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수입산 곡물가격 역시 현재까지는 높은 수준을 유지
- 대내요인으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모습이나,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및 서비스 가격의 급한 상승이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소비자물가는 2022년 12월 기준 5.0% 수준을 기록(2023년 1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5.2%로 재상승)

- 공업제품 중에는 승용차, 가구 등 내구재 가격이, 서비스 가격 중에서는 외식물가의 오름세가 확대
 - 기대인플레이션율: 1.8%(21.1월) → 2.0%(21.2월) → 2.1%(21.3월) → 2.1%(21.4월) → 2.2%(21.5월) → 2.3%(21.6월) → 2.3%(21.7월) → 2.4%(21.8월) → 2.4%(21.9월) → 2.4%(21.10월) → 2.7%(21.11월) → 2.6%(21.12월) → 2.6%(22.1월) → 2.7%(22.2월) → 2.9%(22.3월) → 3.1%(22.4월) → 3.3%(22.5월) → 3.9%(22.6월) → 4.7%(22.7월) → 4.3%(22.8월) → 4.2%(22.9월) → 4.3%(22.10월) → 4.2%(22.11월) → 3.8%(22.12월) → 3.9%(23.1월)
 - 생활물가지수¹⁾ (전년동월비): 0.3%(21.1월) → 1.2%(21.2월) → 1.5%(21.3월) → 2.8%(21.4월) → 3.3%(21.5월) → 3.0%(21.6월) → 3.4%(21.7월) → 3.4%(21.8월) → 3.1%(21.9월) → 4.6%(21.10월) → 5.2%(21.11월) → 4.6%(21.12월) → 4.1%(22.1월) → 4.1%(22.2월) → 5.0%(22.3월) → 5.7%(22.4월) → 6.7%(22.5월) → 7.4%(22.6월) → 7.9%(22.7월) → 6.8%(22.8월) → 6.5%(22.9월) → 6.5%(22.10월) → 5.5%(22.11월) → 5.7%(22.12월) → 6.1%(23.1월)
- 근원물가지수(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전월과 같은 4.8% 기록(2023년 1월 기준, 근원물가상승률은 5.0%로 재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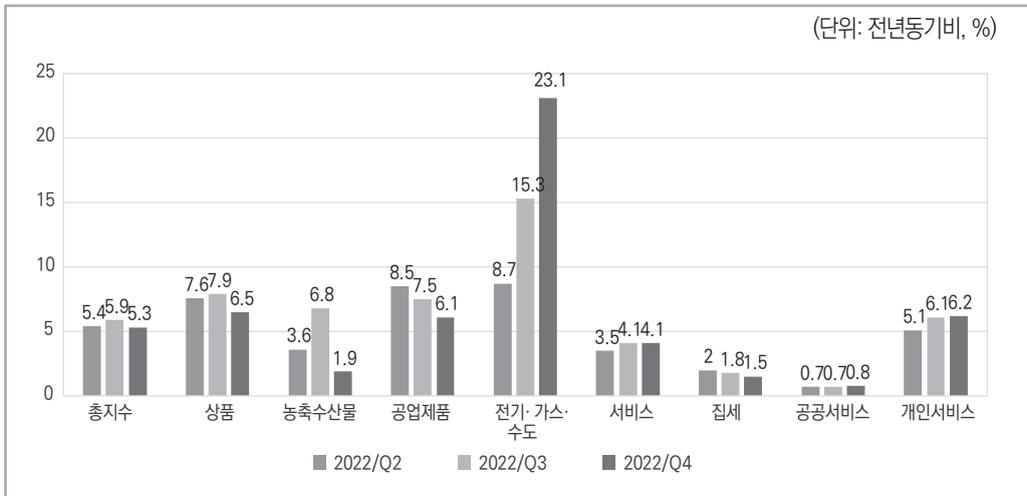
1) 전체 460개 품목 중 구입빈도 및 지출비중이 높은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전월세 비포함(전월세 포함 생활물가지수는 4.5%)

〈그림 I-18〉 주요 물가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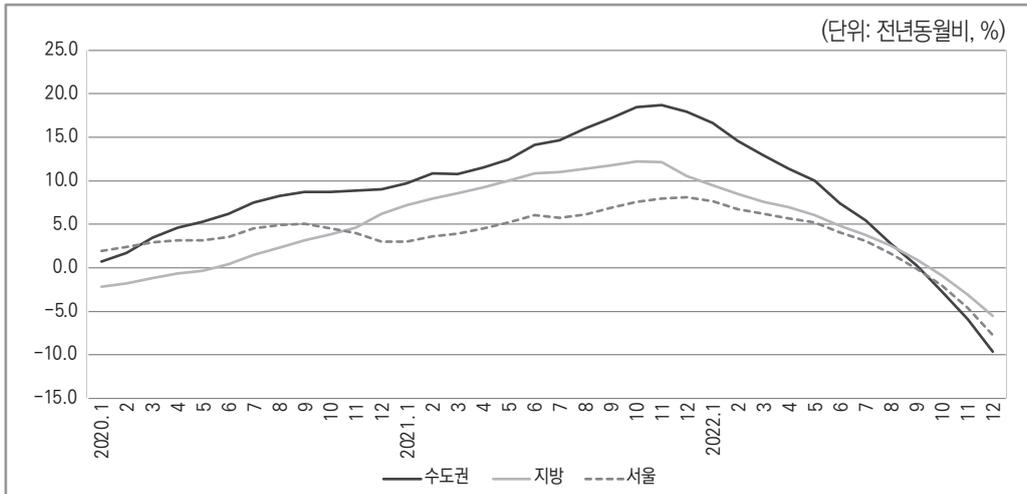
〈그림 I-19〉 품목성질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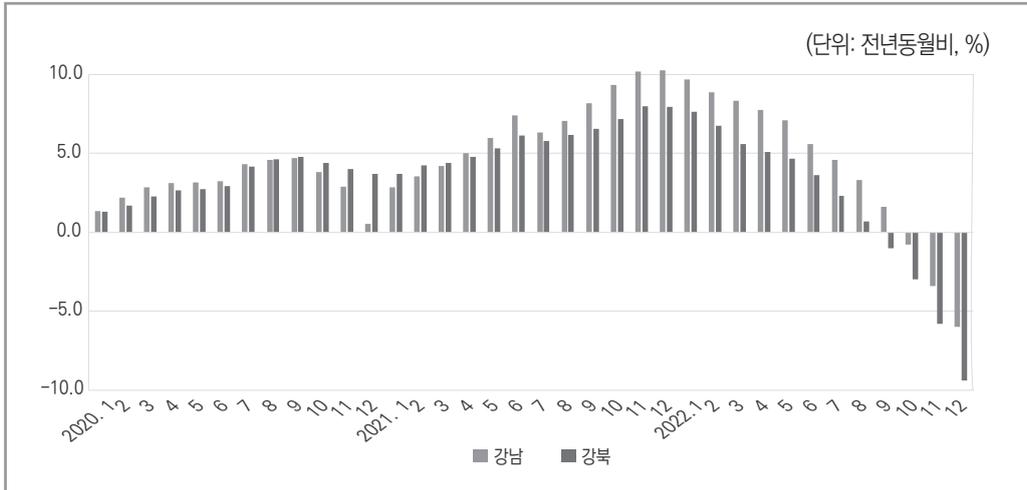
-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은 급격히 오른 금리가 주택구매 및 전세수요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하락
 - 아파트(수도권) 매매가격 증가율: 16.6%(’22.1월) → 14.6%(’22.2월) → 12.9%(’22.3월) → 11.4%(’22.4월) → 10.%(’22.5월) → 7.4%(’22.6월) → 5.4%(’22.7월) → 2.8%(’22.8월) → 0.3%(’22.9월) → -2.7%(’22.10월) → -5.9%(’22.11월) → -9.6%(’22.12월)
 - 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가격, 두 자릿수 증가세를 지속해 오던 상승률은 현재 마이너스(-) 상승률로 내려앉은 상황
 - 금리 급상승에 대한 부담이 주택수요를 압박하는 가운데, 종부세 전면 개정 및 금융규제 완화 등 급변하고 있는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매도 물량 역시 급감하면서 극소수의 급매거래가 주택가격을 형성
 - 거래량 감소로 일부 신축 및 재개발 지역에서는 미분양 발생

〈그림 I-20〉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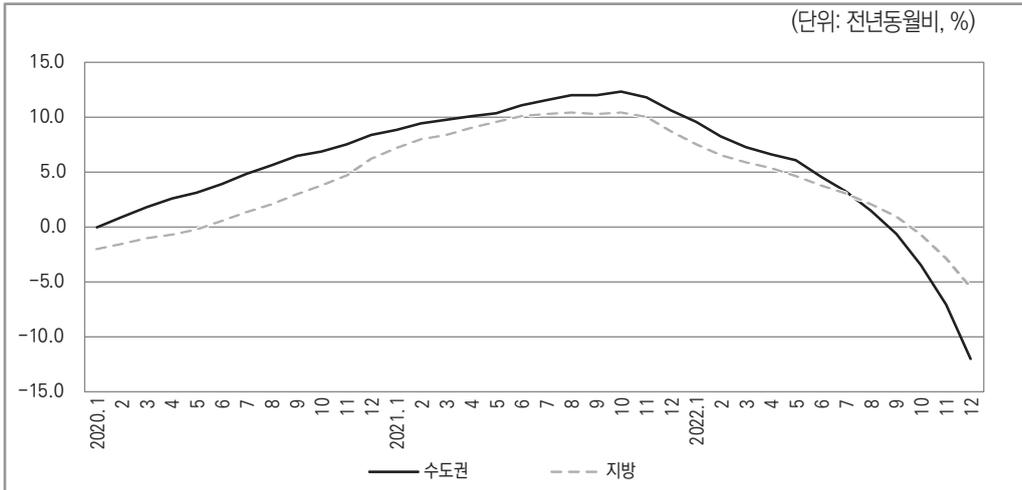
〈그림 I-21〉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증가율



자료: 통계청

- 아파트(수도권) 전세가격 증가율: 9.6%(’22.1월) → 8.2%(’22.2월) → 7.3%(’22.3월) → 6.6%(’22.4월) → 6.1%(’22.5월) → 4.6%(’22.6월) → 3.3%(’22.7월) → 1.5%(’22.8월) → -0.6%(’22.9월) → -3.4%(’22.10월) → -7.0%(’22.11월) → -12.0%(’22.12월)
-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 하락에 동반하여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금리인상의 영향으로 월세선호 현상이 강화

〈그림 I-22〉 아파트 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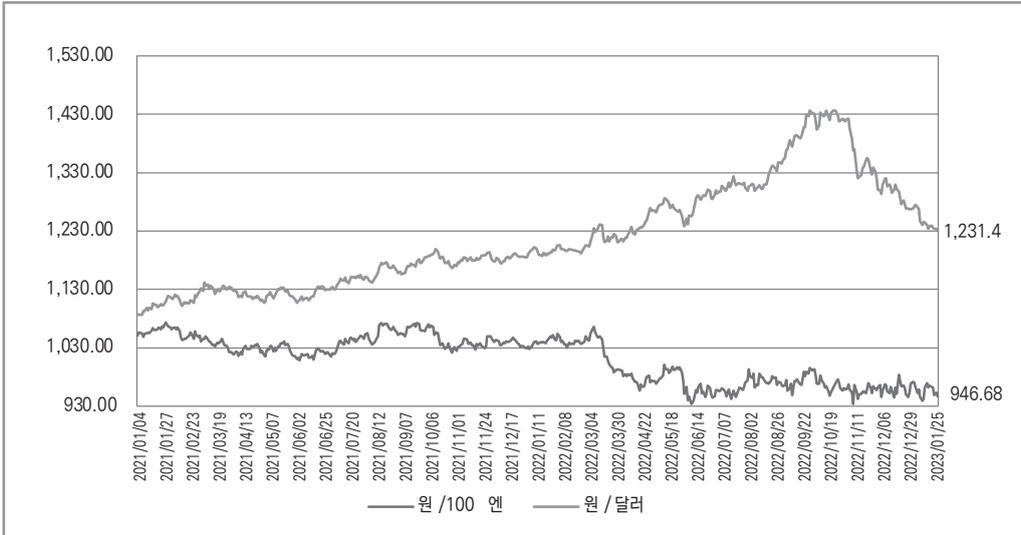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5. 금리와 환율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대응 및 대내 인플레이션 억제조치로 기준금리 인상을 지속해 오게 되면서 한국의 기준금리는 3.50% 수준에 도달
-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동반 상승해 오다 최근 들어 다소 안정을 되찾는 모습
 - 회사채(3년, AA-): 2.14%(‘21.1.15) → 2.04%(‘21.2.17) → 2.12%(‘21.3.17) → 2.06%(‘21.4.9) → 1.90%(‘21.5.26) → 1.97%(‘21.6.29) → 1.83%(‘21.7.27) → 1.82%(‘21.8.26) → 2.01%(‘21.9.24) → 2.42%(‘21.10.26) → 2.58%(‘21.11.23) → 2.39%(‘21.12.10) → 2.60%(‘22.1.14) → 2.92%(‘22.2.18) → 2.95%(‘22.3.14) → 3.68%(‘22.4.13) → 3.78%(‘22.5.17) → 4.47%(‘22.6.17) → 4.14%(‘22.7.14) → 4.08%(‘22.8.17) → 4.76%(‘22.9.15) → 5.32%(‘22.10.14) → 5.64%(‘22.11.08) → 5.22%(‘22.12.27) → 4.36%(‘23.1.26)

〈그림 1-24〉 원/달러, 원/100엔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미국 12월 소비자물가(CPI)는 6.5%를 기록하며 예상치를 하회하게 됨에 따라 美 연준의 긴축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확산하게 되면서 주가는 상승, 환율은 하락
- 미국 물가 정점 통과에 대한 시장의 인식으로 자산가격 회복 및 강달러 현상의 완화 기반 조성이 기대되나, 향후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따라 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재확대될 가능성 역시 상존

제II장

국내 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 경제성장
 - (2) 국제 유가
2. 2022~2023년 국내 경제전망
 - (1) 경제성장
 - (2) 경상수지
 - (3) 물가
 - (4) 환율 및 금리

1. 대외 여건

(1) 세계 경제성장

□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중국경제 위축, 주요국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성장흐름 둔화

○(미국) 고용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상승률도 점차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라 생산과 투자를 중심으로 성장흐름이 점차 약화

- GDP 성장률(전기비): -0.4%(2022.1/4분기) → -0.1%(2022.2/4분기) → 0.8%(2022.3/4분기) → 2.9%(2022.4/4분기)
- 산업생산: 1.2%(2022.1/4분기) → 1.2%(2022.2/4분기) → 0.4%(2022.3/4분기) → -0.1%(2022.10월) → -0.2%(2022.11월)
- 실업률: 3.8%(2022.2월) → 3.6%(4월) → 3.6%(5월) → 3.5%(7월) → 3.7%(10월) → 3.5%(12월)
- 소비자물가(CPI): 8.0%(2022.1/4분기) → 8.6%(2022.2/4분기) → 8.3%(2022.3/4분기) → 7.7%(2022.10월) → 6.5%(2022.12월)

○(중국) 미·중 무역갈등 양상의 지속 및 기업구조조정 문제가 여전히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수출의 큰 폭 감소 및 부동산경기 위축의 영향으로 성장세 둔화

- GDP 성장률(동기비): 4.8%(2022.1/4분기) → 0.4%(2022.2/4분기) → 3.9%(2022.3/4분기)

○(일본) 소비 및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한 내수회복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으로 반등했던 일본경제는 하반기 이후 소비가 급감하며 다시 마이너스(-)성장으로 반락

- GDP 성장률(전기비): -0.5%(2022.1/4분기) → 1.1%(2022.2/4분기) → -0.2%(2022.3/4분기)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부진한 회복흐름 지속

- GDP 성장률(전기비): 0.6%(2022.1/4분기) → 0.8%(2022.2/4분기) → 0.3%(2022.3/4분기)

〈표 II-1〉 세계 경제 전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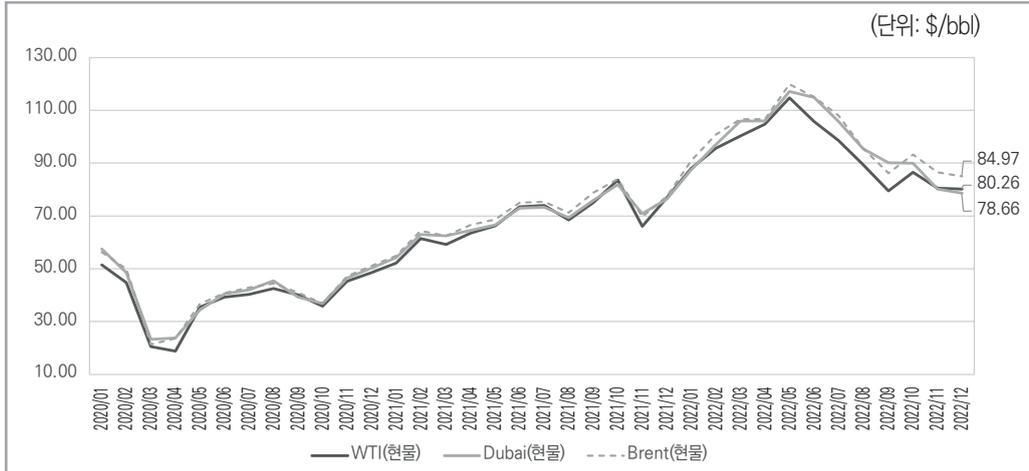
	실적치	2023 1월 현재 전망치		2022 10월 전망치와 비교(%p)	
		2022	2023	2024	2023
세계	3.4	2.9	3.1	0.2	-0.1
선진국	2.7	1.2	1.4	0.1	-0.2
미국	2.0	1.4	1.0	0.4	-0.2
영국	4.1	-0.6	0.9	-0.9	0.3
유로존	3.5	0.7	1.6	0.2	-0.2
일본	1.4	1.8	0.9	0.2	-0.4
신흥개도국	3.9	4.0	4.2	0.3	-0.1
중국	3.0	5.2	4.5	0.8	0.0
인도	6.8	6.1	6.8	0.0	0.0
브라질	3.1	1.2	1.5	0.2	-0.4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Jan 2023)

(2) 국제 유가

- 주요 산유국 감산기조 지속 및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긴축기조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국제유가는 80달러 초반 수준까지 하락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긴장상태 지속에도 불구하고 세계경기 회복세 약화에 따라 석유수요가 둔화하게 되면서 국제유가는 상승흐름이 약화되며 점진적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낮은 재고수준 및 계절적 수요증가는 유가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

〈표 II-2〉 세계 석유 수급 전망

(단위: 백만bbl/d)

구분	2021	2022					2023
		1/4	2/4	3/4	4/4	평균	평균
수요	97.56	98.93	98.65	99.95	100.75	99.82	100.98
공급	95.70	98.83	98.75	100.92	101.17	99.93	100.67
OPEC 공급(원유)*	31.66	33.75	33.76	34.68	34.15	34.09	34.37
비OPEC 공급	64.03	65.08	64.98	66.24	67.02	65.84	66.30
재고변동(수요-공급)	1.86	0.29	0.30	-0.83	-0.17	-0.11	0.31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Short Term Energy Outlook Jan 2023

〈표 II-3〉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22 평균	2023				
			1Q	2Q	3Q	4Q	평균
EIA 2023.01	WTI	94.91	77.37	79.00	77.00	75.35	77.18
EIA 2023.01	Brent	100.94	83.03	85.00	83.00	81.35	83.10

주: EIA(美 에너지정보청)

자료: EIA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표 II-4〉 전망의 주요 전제

	2022년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	3.4%	2.9%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배럴당)	\$97.92	\$80.09

2. 2022~2023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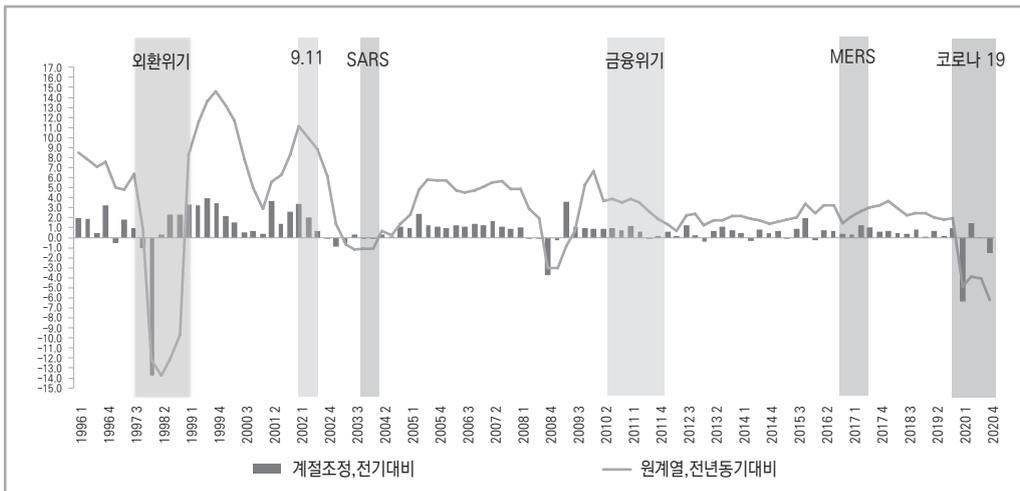
□ 민간소비: 2022년 4.4%(상반4.1 하반4.7) → 2023년 2.4%(상반2.9 하반1.9)

- 2022년 민간소비는 방역조치 완화 및 고용여건의 일부 개선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 자영업 부진에 따른 소득기반 약화,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신용에 대한 원리금상환부담 상승 등이 소비를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에 대한 불안감이 소비심리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면서 회복세가 제한

▶ 주요 위기별 민간소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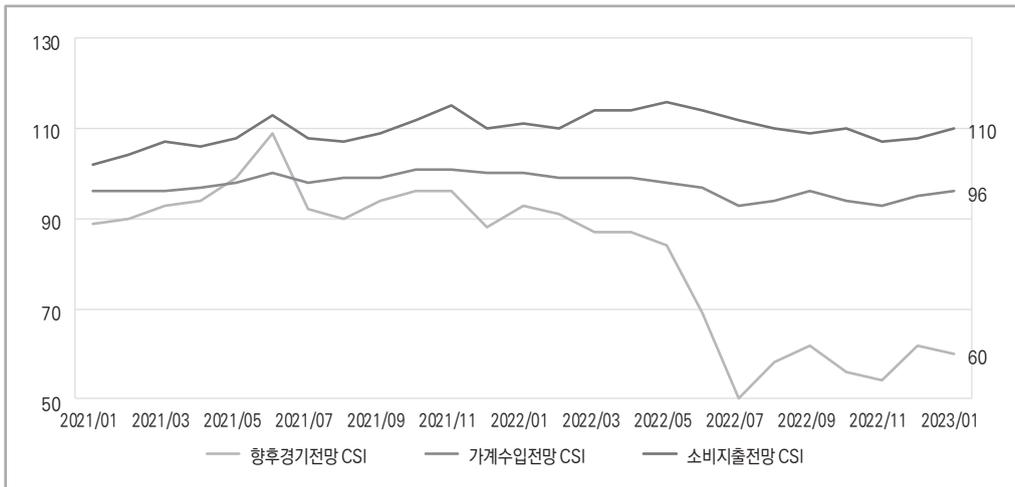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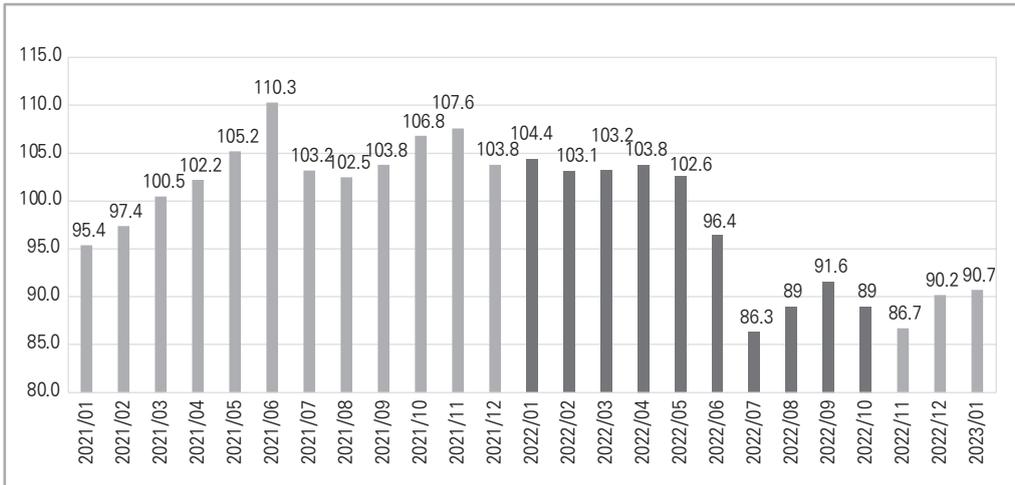
- ✓ 외환위기: -11.6%('98.1Q~'98.4Q, 평균)
- ✓ 사스: -0.7%('03.2Q)
- ✓ 금융위기: -3.0%('08.4Q~'09.1Q, 평균)
- ✓ 메르스: 1.9%('14.2Q)
- ✓ 코로나19: -5.0(2020년)

〈그림 II-2〉 역사적 민간소비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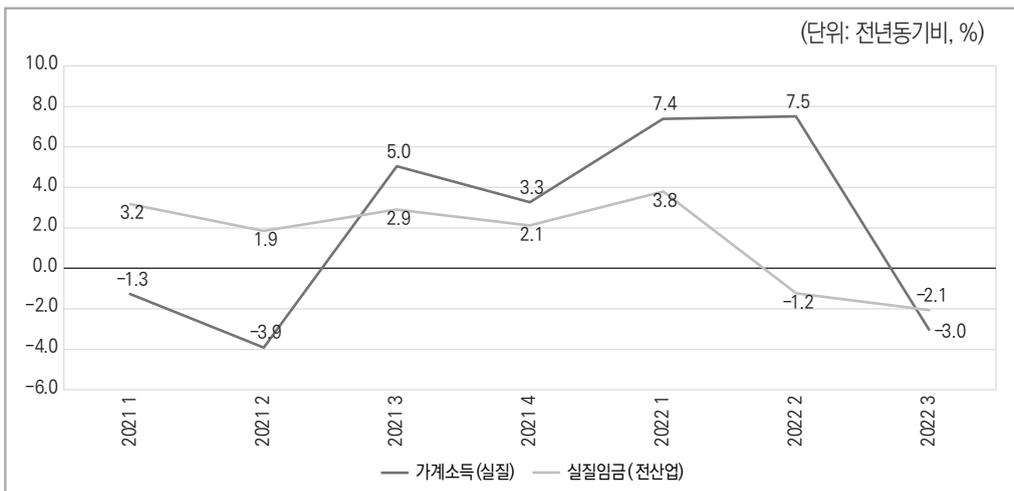
〈그림 II-3〉 소비자심리지수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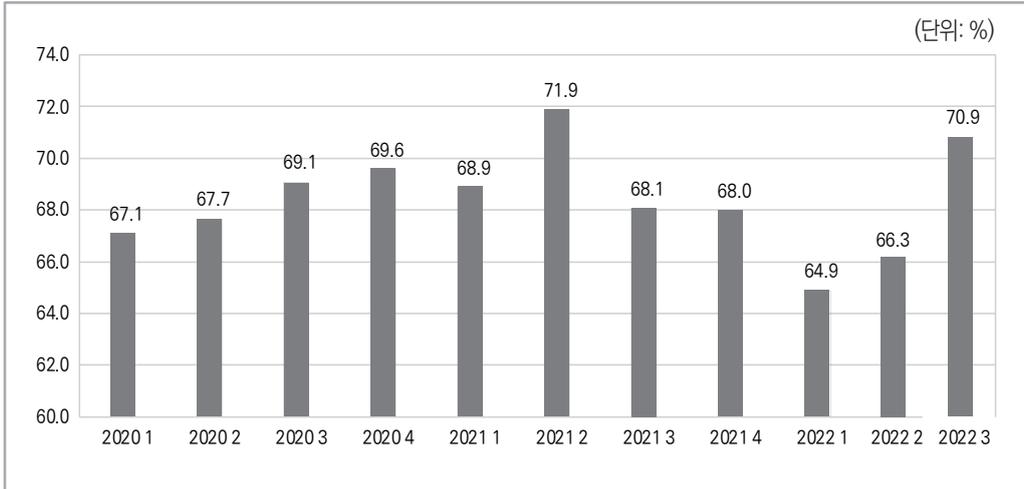
- 2023년 민간소비는 고물가로 인한 실질구매력 감소, 금리인상, 경기둔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성장세가 큰 폭으로 위축하게 될 전망
 - 소득기반 약화: 자영업자 업황부진 지속 및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임금 상승 정체에 기인한 가계소득 감소
 - 금리인상으로 인한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1,86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규모에 금리인상까지 빠르게 이뤄지며 매분기 이자비용만 70조 원을 초과하며 소비여력이 크게 감소

〈그림 II-4〉 최근 가계 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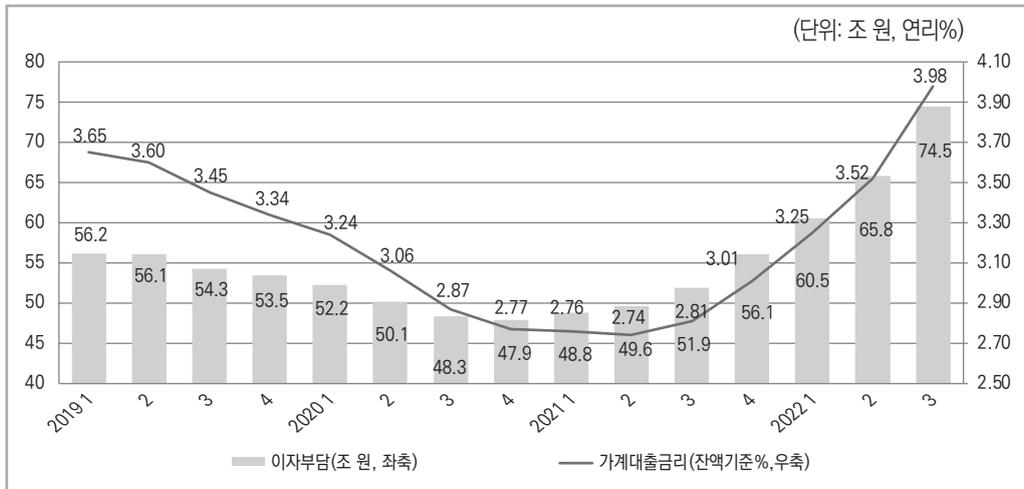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5〉 평균소비성향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6〉 가계대출 이자부담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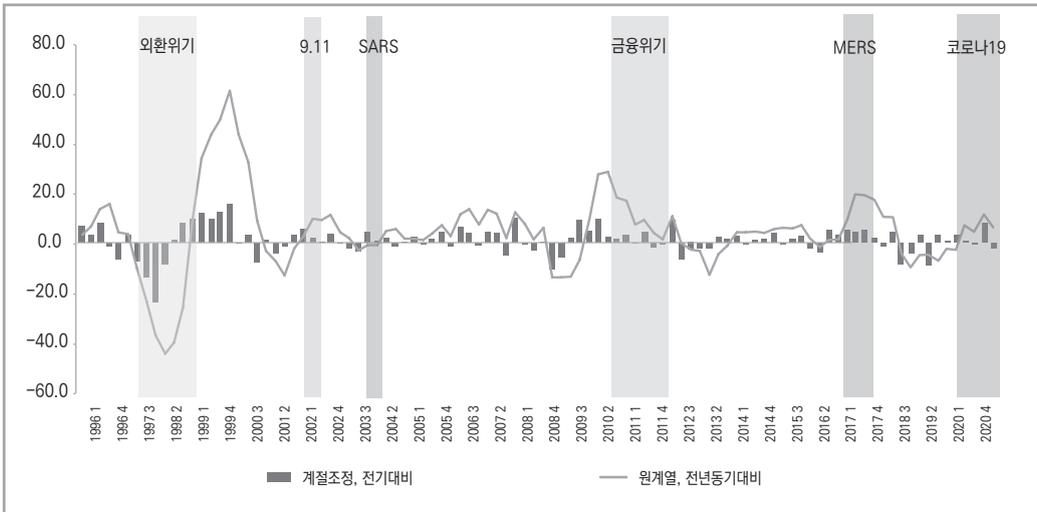
□ 설비투자: 2022년 -0.7%(상반-6.4 하반 4.7) → 2023년 -2.5%(상반0.5 하반-5.5)

○ 2022년 설비투자는 주요국의 경기회복세 약화,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

▶ 주요 위기별 설비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38.3%('98.1Q~'98.4Q, 평균)
- ✓ 사스: 1.8%('03.2Q)
- ✓ 금융위기: -14.4%('08.4Q~'09.1Q, 평균)
- ✓ 메르스: 4.5%('14.2Q)
- ✓ 코로나19: 6.8(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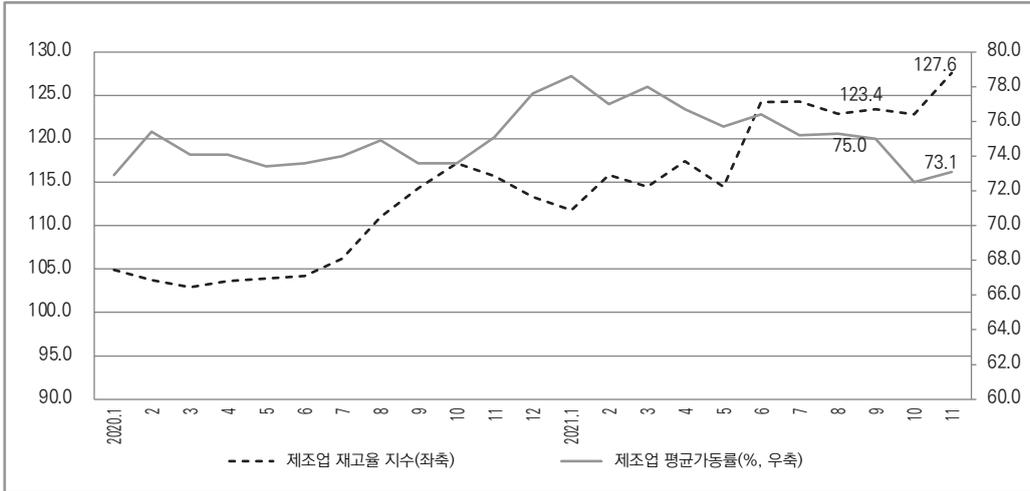
〈그림 II-7〉 역사적 설비투자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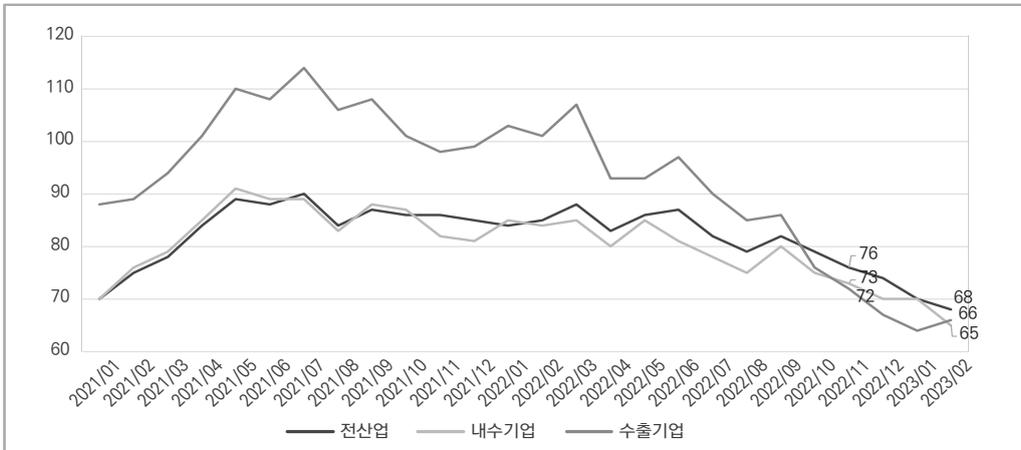
○ 2023년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둔화 심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금리인상으로 인한 자본조달 부담까지 가중되며 역(逆)성장을 기록하게 될 전망. 특히, 반도체부문의 설비투자 위축은 전체 설비투자의 규모를 줄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그림 11-8〉 제조업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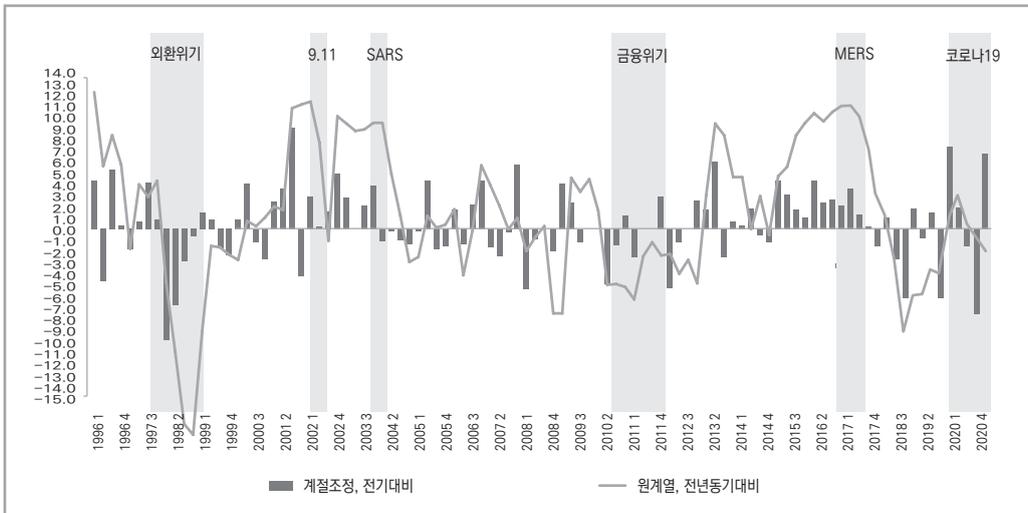
〈그림 11-9〉 업황전망



자료: 통계청

- 건설투자: 2022년 -3.5%(상반-4.4 하반-2.6) → 2023년 -0.5%(상반1.8 하반-2.8)
- 2022년 건설투자는 정부주도의 건물건설이 증가하고, 현재 진행중인 토목부문의 증가세에 정부의 SOC 확대 계획에 따른 철도 및 도로건설이 본격화되면서 공사 물량은 늘어났으나, 원자재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공사차질의 심화가 현실화되면서 건설투자 회복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모습
- ▶ 주요 위기별 건설투자 증감률
 - ✓ 외환위기: -12.5%('98.1Q~'98.4Q, 평균)
 - ✓ 사스: 8.4%('03.2Q)
 - ✓ 금융위기: -7.3%('08.4Q~'09.1Q, 평균)
 - ✓ 메르스: 0.0%('14.2Q)
 - ✓ 코로나19: -0.1(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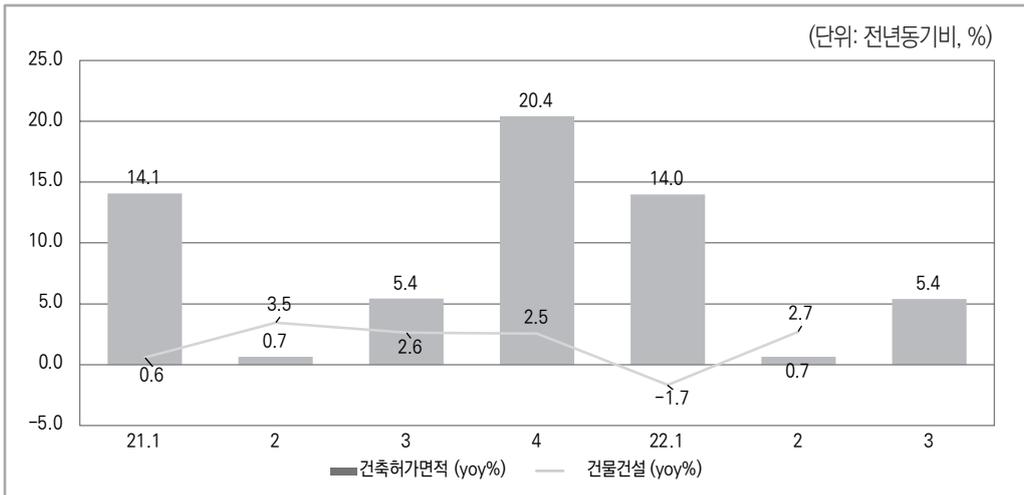
〈그림 II-10〉 역사적 건설투자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3년 건설투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택시장 위축 및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압박까지 가중되어 성장세를 기대하기 난망한 상황
 - 부동산 PF 관련 이슈로 건설산업 전체의 불확실성이 확대
 -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현장의 차질에 대한 수습과 및 미분양 사태 발생에 따른 건설업체의 자금난 등에 대한 원활한 대처여부가 올해 건설투자의 회복흐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

〈그림 II-11〉 건축허가 연면적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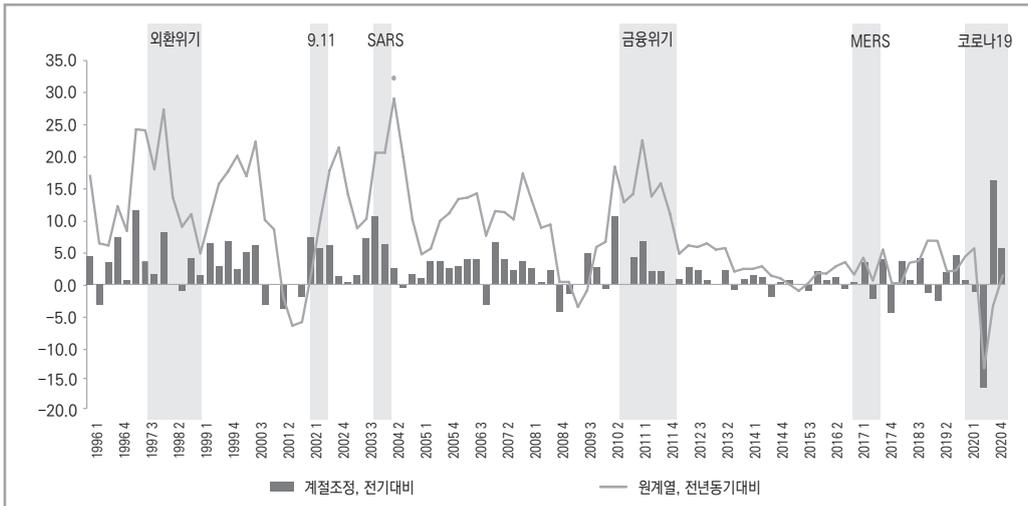
□ 상품수출: 2022년 3.1%(상반6.0, 하반0.2) → 2023년 1.2%(상반-1.3, 하반3.7)

- 2022년 수출은 상반기 중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2021년 높았던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 하반기 이후 주요국 경기회복세 약화, 중국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성장폭은 기대치를 하회

▶ 주요 위기별 수출 증감률

- ✓ 외환위기: 15.2%('98.1Q~'98.4Q, 평균)
- ✓ 사스: 8.8%('03.2Q)
- ✓ 금융위기: -0.9%('08.4Q~'09.3Q, 평균)
- ✓ 메르스: 2.8%('14.2Q)
- ✓ 코로나19: -2.4(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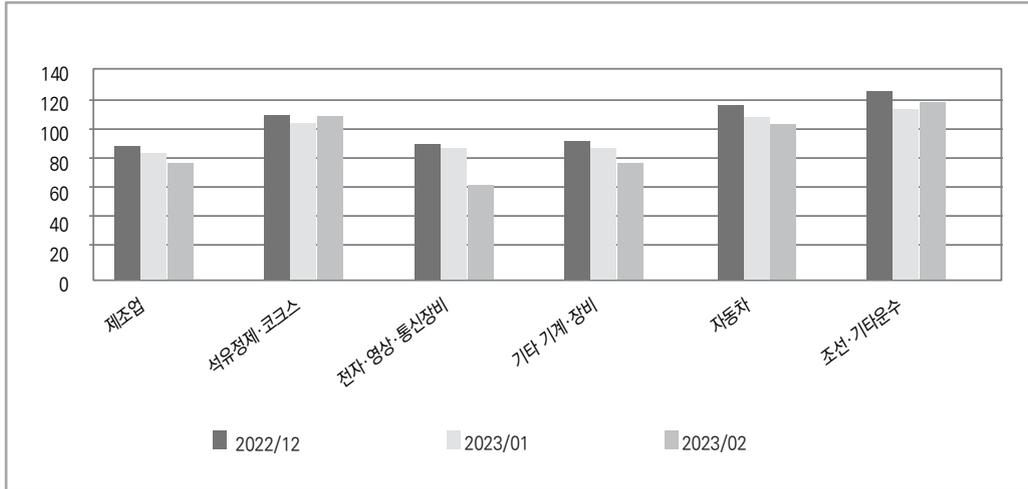
〈그림 II-12〉 역사적 수출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3년 수출은 반도체 수출증가폭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주요국 경기회복세 약화 및 중국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수입수요가 위축하게 됨에 따라 1.2% 수준의 낮은 성장에 그칠 전망

〈그림 II-13〉 품목별 수출경기



자료: 한국은행

- D램 및 낸드 가격의 하락세 지속 및 반도체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초과공급 현상이 지속되며 반도체 수출은 감소세가 확대
- 반도체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 일반기계 부문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화로 증가세 축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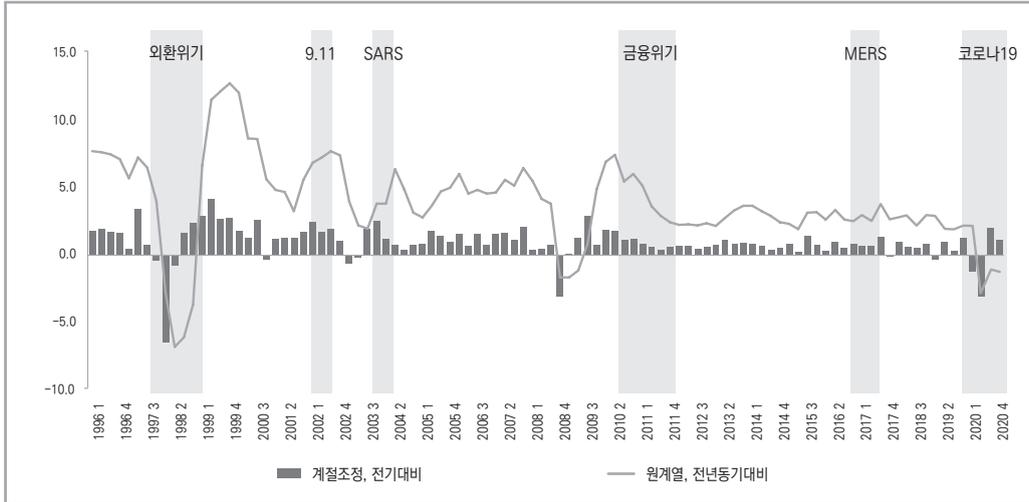
□ GDP 성장률: 2022년 2.6%(상반3.0, 하반2.2) → 2023년 1.5%(상반1.3, 하반1.7)

- 2022년 한국경제는 상반기 중 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개선세를 보였으나, 하반기 이후 가파른 금리인상과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면서 성장세가 약화됨에 따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2.6% 성장률을 기록

▶ 주요 위기별 GDP 증감률

- ✓ 외환위기: -5.1%('98.1Q~'98.4Q, 평균)
- ✓ 사스: 2.3%('03.2Q)
- ✓ 금융위기: -1.5%('08.4Q~'09.2Q, 평균)
- ✓ 메르스: 3.4%('14.2Q)
- ✓ 코로나19: -1.0(2020년)

〈그림 II-14〉 역사적 GDP 증감률(1996~2016)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2023년 한국경제는 성장을 견인해 왔던 수출이 부진을 겪는 가운데 고물가와 고금리의 영향으로 소비와 투자의 성장세도 크게 약화되면서 1.5%의 낮은 성장흐름을 보일 전망

★ 통화정책

- 지난 7월에 이어 최근 10월까지 금리인상이 가파른 속도로 이루어진 가운데 연말을 경과하며 기준금리는 3.5%의 수준에 이를 전망
- 급격히 늘어난 민간부채(가계부채, 기업부채)가 금리인상 현실화로 인해 금융시장 내에 신용경색 및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금리인상에 따른 경기위축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속도 조절에 신중을 기할 필요

★ 재정정책

- 2023년도 예산은 2022년도에 비해 35조 원 증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두어 예산안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수입(626조) 대비 총지출(639조) 규모가 커 국가채무는 소폭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

다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

-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은 자명하지만 무분별한 이천지출 남발보다는 기업 및 가계에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을 펼쳐 나가는 한편, 물가안정을 이루려는 중앙은행의 정책기조에 부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이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

○ 다음과 같은 불안요인들의 향후 성장률 전망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

- 공급망 차질에 기인한 물가의 급등의 지속
- 美연준의 급진적인 금리인상 기조 지속가능성
- 자산가격 급락 및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에 따른 금융시장 위기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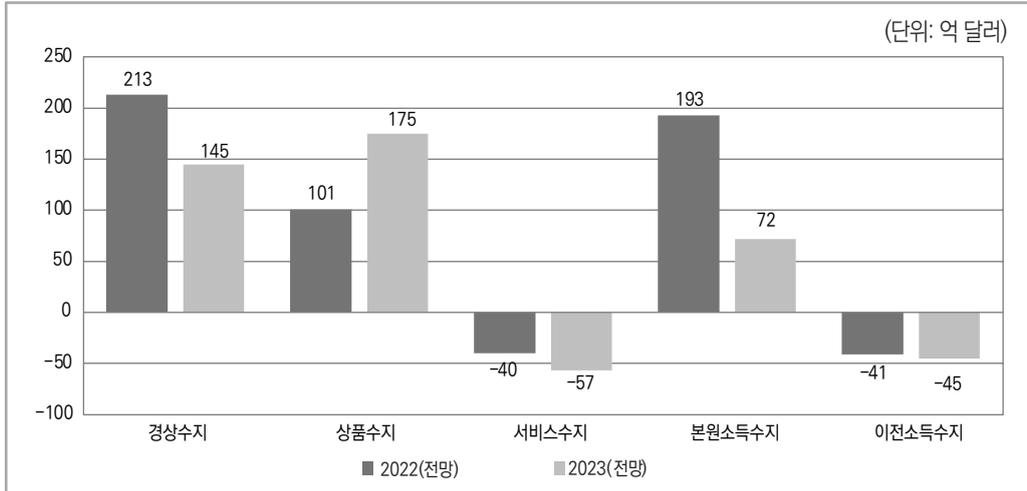
★ 상기 언급한 하방리스크가 현실화되어 성장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경제성장률의 0.1~0.2%p 추가적인 인하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

(2) 경상수지

□ 경상수지: 2022년 213억 달러 흑자(상반248 하반-35) → 2023년 145억 달러 흑자(상반50, 하반95)

- 2022년 경상수지는 수출증가세가 점차 약화되고 수입수요 및 수입단가가 크게 늘면서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급감이 불가피할 전망
- 2023년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의 적자폭 확대에 따라 전체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2022년에 비해 감소하게 될 전망

〈그림 II-15〉 경상수지 항목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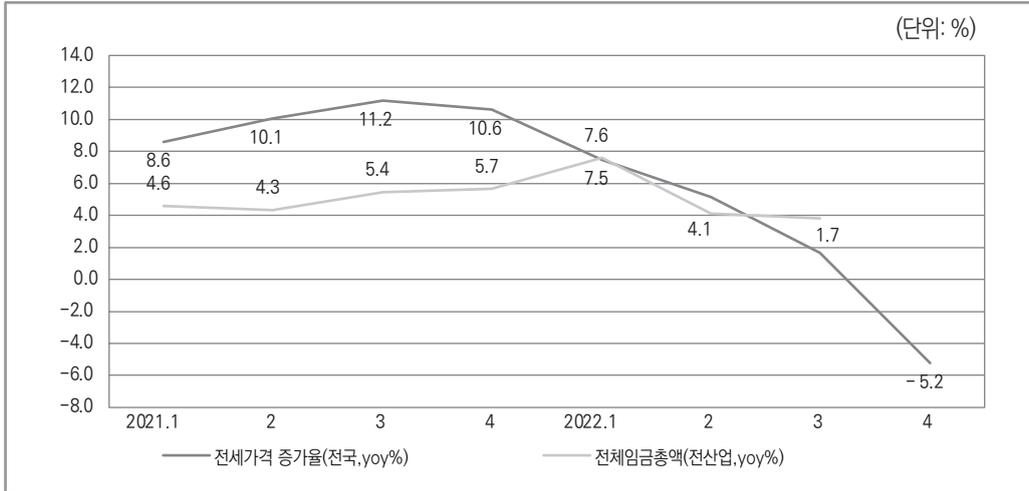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3) 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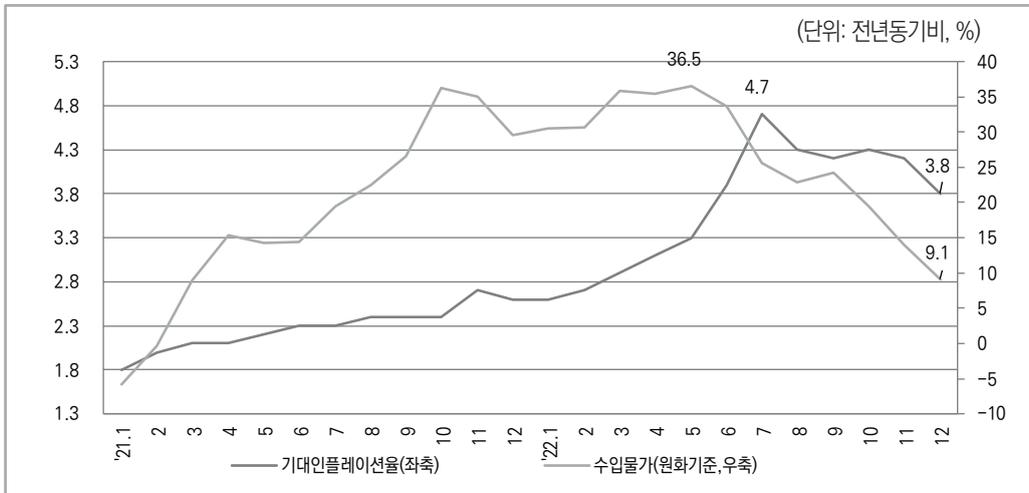
□ 소비자물가 : 2022년 5.1%(상반4.6, 하반5.6) → 2023년 3.4%(상반4.3 하반2.5)

- 2022년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및 수급불균형 현상이 광범위하게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5.1% 수준을 기록
- 2023년 물가는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반기를 경과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강달러 현상 역시 완화하게 됨에 따라 3% 중반 수준의 물가상승률을 보일 전망
 - 對러시아 에너지 제재조치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는 배럴당 90달러대로 하락
 -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재개하고 미국이 공급을 늘리면서 하락세로 전환
 - 집값 및 임대료의 하락 역시 물가에 대한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그림 II-16〉 전세가격, 임금총액



〈그림 II-17〉 수입물가, 기대인플레이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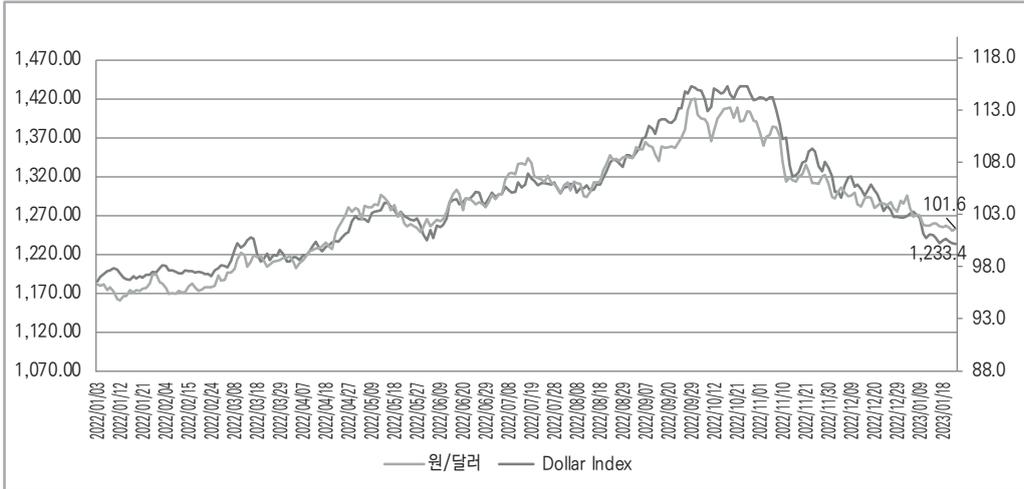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4) 환율 및 금리

□ 원/달러 환율: 2022년 1,323원/달러 → 2023년 1,215원/달러

- 2022년 원달러 환율은 美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예상을 뛰어넘어 빠르게 진행된 가운데,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기대에 못미치게 됨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지속
- 특히,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 및 고인플레이션, 지정학적 갈등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위험을 반영하여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어 옴에 따라 달러화의 강세기조가 지속
- 최근 美물가상승률이 6% 수준으로 내려오면서 물가정점 통과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확산하게 됨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어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 초중반 수준까지 하락
- 2023년 원달러 환율은 미국의 물가급등세 진정에 따라 금리인상 폭 역시 완화될 것으로 예상. 2022년 1,323원에 비해 108원 절상된 1,215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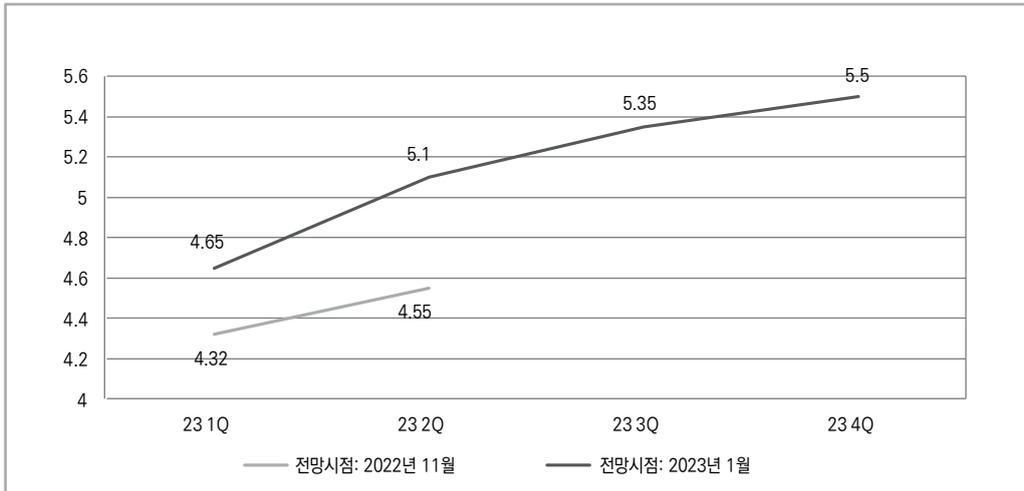
〈그림 11-18〉 원/달러, 달러 인덱스



자료: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 정책금리. 美연준이 빅스텝(0.50bp)을 넘어 자이언트스텝(0.75bp)까지 단행하여 기준금리를 4.50%(상단기준)까지 상승시켰고, 향후에도 금리인상 기초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고함에 따라 2023년 미국의 최종금리는 5.00%에 도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따라서 현재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기준금리 역시 현재 3.50%에서 4.50%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미국 12월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게 되면서 통화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가 형성
- 일부 연준 총재들도 통화정책이 이미 제약적인 수준에 도달하여 향후 금리인상 속도에 대한 조절 가능성을 시사
- 향후 미국 고용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금리인상 폭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미국 1월 3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18.6만건으로 예상치를 하회)
- 한편, ECB는 긴축적 금리인상 기초를 지속할 것을 피력한 반면, 일본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할 계획

〈그림 II-19〉 미국 기준금리 전망



자료: 주요 10대 IB 전망 평균치

〈표 II-5〉 2022~2023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21년	2022년			2023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GDP	4.1	3.0	2.2	2.6	1.3	1.7	1.5
민간소비	3.7	4.1	4.7	4.4	2.9	1.9	2.4
건설투자	-1.6	-4.4	-2.6	-3.5	1.8	-2.8	-0.5
설비투자	9.0	-6.4	4.7	-0.7	0.5	-5.5	-2.5
지식생산물투자	4.4	4.5	3.4	3.9	3.1	3.3	3.2
수 출	10.5	6.0	0.2	3.1	-1.3	3.7	1.2
수 입	12.8	5.2	7.5	6.4	1.0	1.7	1.4
소비자물가	2.5	4.6	5.6	5.1	4.3	2.5	3.4
경상수지(억 달러)	883	248	-35	213	50	95	145
상품수지(억 달러)	762	200	-99	101	101	74	175
서비스수지(억 달러)	-32	5	-45	-40	-25	-32	-57
실업률(%)	3.7	3.2	2.8	3.0	3.6	3.4	3.5

keri 경제동향과 전망

1판 1쇄 인쇄 / 2023년 3월 13일

1판 1쇄 발행 / 2023년 3월 16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권태신

편집인 / 권태신

등록번호/제1982-000003호

(0732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대표) 3771-00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3